

## WEBVTT

00:00:09.323 --> 00:00:10.754

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
00:00:10.854 --> 00:00:11.840

김태동 선생입니다.

00:00:11.940 --> 00:00:13.339

오늘 문법 마지막 시간입니다.

00:00:13.439 --> 00:00:14.790

마지막 연습 시간입니다.

00:00:14.890 --> 00:00:16.487

유형 연습이고, 실전  
문제가 또 남았네요.

00:00:16.587 --> 00:00:18.827

국어의 변천이라고  
해서 우리 학생들이

00:00:18.927 --> 00:00:20.597

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 
중의 하나입니다.

00:00:20.697 --> 00:00:23.951

15세기부터 우리 국어가  
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.

00:00:24.051 --> 00:00:25.923

15세기에 한글이 창제됐죠.

00:00:26.023 --> 00:00:31.104

1443년에 한글이 만들어지고  
나서 그때부터의 흐름이 지금까지

00:00:31.204 --> 00:00:32.718

이어져 오고 있습니다.

00:00:32.818 --> 00:00:36.190

그래서 이제 고대 국어, 중세  
국어, 근대 국어, 현대 국어

00:00:36.290 --> 00:00:37.539

이렇게 이어져 오는데.

00:00:37.639 --> 00:00:39.548

고대 국어는 수능 시험에 잘 나오지는  
않아요, 내신에서 나오지만.

00:00:39.648 --> 00:00:44.285

그런데 이제 중세 국어랑 근대  
국어 같은 경우는 현대 국어랑

00:00:44.385 --> 00:00:48.665

연결해서 특히 여기 보면 중세  
국어, 근대 국어 나누어졌잖아요.

00:00:48.765 --> 00:00:51.493

그 나누어진 이유가 바로 뭐냐면  
중세 국어, 근대 국어에 대한

00:00:51.593 --> 00:00:54.653

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기  
때문에 그렇습니다.

00:00:54.753 --> 00:00:57.001

실제 수능 시험에도  
나오는데, 어려워요.

00:00:57.101 --> 00:00:59.685

여러분, 유형 연습 1번  
보시면 첫 번째 문제 보시면

00:00:59.785 --> 00:01:02.854

6월 모의평가 여러분 반드시  
먼저 한번 풀어 보세요.

00:01:02.954 --> 00:01:04.463

정말 어렵습니다, 여러분.

00:01:04.563 --> 00:01:06.969

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 
느낌이 좀 들 거예요, 아마.

00:01:07.069 --> 00:01:08.301

괜찮습니다.

00:01:08.401 --> 00:01:11.584

같이 한번 해보면 여러분, 쉽게  
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, 아마.

00:01:11.684 --> 00:01:14.849

오늘 이 시간에는 중세  
국어와 근대 국어의 변천.

00:01:14.949 --> 00:01:19.108

어떻게 변천됐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 
조목조목 좀 살펴볼 겁니다.

00:01:19.208 --> 00:01:20.897

시작해 볼게요.

00:01:20.997 --> 00:01:24.827

중세 국어는 처음에 뭐냐면  
여린ㅎ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.

00:01:24.927 --> 00:01:28.348

그다음에 순경음 ㅂ이라고  
하는 게 있었고요.

00:01:28.448 --> 00:01:31.452

그다음에 세모, 반치음이라고 하죠.

00:01:31.552 --> 00:01:35.144

옛 ㅇ, 그다음에 아래아  
이렇게 사용이 됐었습니다.

00:01:35.244 --> 00:01:37.563

이렇게 사용이 됐다

점차 사라졌는데.

00:01:37.663 --> 00:01:41.369  
사라지는 순서를 어떻게 외우냐면  
이렇게 외웠어요, 옛날에.

00:01:41.469 --> 00:01:42.848  
이쪽으로 잠깐 오실까요?

00:01:42.948 --> 00:01:48.350  
순경음 비이 10원을 가지고  
산에 올라가서 사과를 먹었더니

00:01:48.450 --> 00:01:50.433  
씨만 남았다, 이렇게  
표현하기도 하고요.

00:01:50.533 --> 00:01:54.416  
또는 순경음 비이 헬멧을  
쓰고 산에 올라가서

00:01:54.516 --> 00:01:58.183  
수류탄을 던졌더니 이빨만 남았다,  
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.

00:01:58.283 --> 00:02:02.025  
제가 원래 수업할 때 그렇게 했었는데,  
작년부터 제가 좀 바꿨어요.

00:02:02.125 --> 00:02:03.874  
되게 좋은 걸  
발견했거든요, 보세요.

00:02:03.974 --> 00:02:08.118  
순경음 비이 어떻게  
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.

00:02:08.218 --> 00:02:12.868  
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생기고  
점이 여기 찍히면 되는 거예요.

00:02:12.968 --> 00:02:16.402  
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사라졌다 이렇게  
생각하시면 됩니다, 아시겠죠?

00:02:16.502 --> 00:02:20.054  
간혹가다 학생들 외우는데 잘못 외워서  
이렇게 외우는 친구들 있어요.

00:02:20.154 --> 00:02:23.917  
순경음 비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 
외우면 눈썹이 이상해지잖아요.

00:02:24.017 --> 00:02:28.610  
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, 절대로  
눈썹 정확하게 이렇게 눈썹 그리시고,

00:02:28.710 --> 00:02:30.744  
그다음에 코 그리시고,  
입 그리시고,

00:02:30.844 --> 00:02:33.238

인중까지 이렇게 자세히  
표현됐습니다, 아시겠죠?

00:02:33.338 --> 00:02:34.185

그다음에 점이 여기 찍혔다.

00:02:34.285 --> 00:02:35.889

점이 여기 찍히면 안  
됩니다, 여러분.

00:02:35.989 --> 00:02:39.841

순서대로 이렇게 사라졌다, 이렇게  
생각하시면 됩니다, 아시겠죠?

00:02:39.941 --> 00:02:44.198

그러면 이쪽으로 오시면 어두  
자음군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어요.

00:02:44.298 --> 00:02:49.324

어두 자음군이라고 하면 뭐냐면  
어두의, 단어 맨 앞에 자음군,

00:02:49.424 --> 00:02:52.614

자음이 무리를 이루어서  
나타나게 되었다.

00:02:52.714 --> 00:02:56.705

그게 바로 어두  
자음군이라고 하는 겁니다.

00:02:56.805 --> 00:02:59.571

ㅂㄷ, ㅂㅅ 이런  
것들이 쓰였다는 거죠.

00:02:59.671 --> 00:03:02.507

방점을 사용해서 성조를 표시했다.

00:03:02.607 --> 00:03:04.616

방점이라고 하는 게 점을 찍어요.

00:03:04.716 --> 00:03:09.712

글자 왼쪽에 점을 찍으면서 성조,  
음의 높낮이, 소리의 높낮이가

00:03:09.812 --> 00:03:10.851

표현이 된 거죠.

00:03:10.951 --> 00:03:12.937

이것도 이쪽으로 와서 간단하게  
설명 드리고 가겠습니다.

00:03:13.037 --> 00:03:17.838

여러분, 성조라고 하면 이게 중국  
발음하고 유사하게 발음하기 위해서

00:03:17.938 --> 00:03:19.402

성조를 표현했는데요.

00:03:19.502 --> 00:03:22.728

성조라고 하는 것이 방점을

통해서 표현됩니다.

00:03:22.828 --> 00:03:33.650

성조는 우선 뭐가 있냐면  
평성, 거성, 상성, 입성.

00:03:33.750 --> 00:03:35.106

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.

00:03:35.206 --> 00:03:37.187

평성, 거성, 상성,  
입성 네 가지가 있고요.

00:03:37.287 --> 00:03:41.739

방점에, 방점 수는  
조금 이따 볼까요?

00:03:41.839 --> 00:03:45.397

이 소리가 높낮이가, 성조는  
높낮이를 표현한다고 얘기했잖아요.

00:03:45.497 --> 00:03:48.016

높낮이가 고저라는 말과  
똑같습니다, 여러분.

00:03:48.116 --> 00:03:50.706

평성은 낮은 소리고요.

00:03:50.806 --> 00:03:52.848

거성은 높은 소리입니다.

00:03:52.948 --> 00:03:54.310

상성은 뭐예요?

00:03:54.410 --> 00:03:58.018

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 
소리가 바로 상성입니다.

00:03:58.118 --> 00:04:03.397

입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 
짧게 닫는 소리입니다.

00:04:03.497 --> 00:04:06.848

짧게 소리가 끊어지면서 닫히는  
소리가 바로 입성이거든요.

00:04:06.948 --> 00:04:09.671

그래서 높낮이에 따라  
이렇게 나눌 수 있다.

00:04:09.771 --> 00:04:15.455

그러면 방점으로 표현하는데, 방점은  
글자의 왼쪽에 찍힌 점이거든요.

00:04:15.555 --> 00:04:17.329

평성은 점이 없어요.

00:04:17.429 --> 00:04:18.891

점이 없으면 낮은 소리고요.

00:04:18.991 --> 00:04:21.681

거성은 하나, 상성은  
두 개가 되고.

00:04:21.781 --> 00:04:25.335  
입성은 없기도 하고, 하나이기도  
하고, 두 개이기도 해요.

00:04:25.435 --> 00:04:26.696  
그럼 이게 헛갈리잖아요.

00:04:26.796 --> 00:04:29.772  
그러면 입성은 어떻게 하나면  
입성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

00:04:29.872 --> 00:04:31.855  
받침을 보는 거예요.

00:04:31.955 --> 00:04:34.621  
받침이 ㅂ, ㄷ, ㄱ, ㅅ.

00:04:34.721 --> 00:04:38.055  
받침이 ㅂ, ㄷ, ㄱ, ㅅ 이렇게  
나오면 이걸 짧게 끊어서 읽는다.

00:04:38.155 --> 00:04:39.196  
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

00:04:39.296 --> 00:04:40.352  
볼까요?

00:04:40.452 --> 00:04:42.140  
나랏말싸미 등귀에 달아 할 때.

00:04:42.240 --> 00:04:50.608  
나랏말싸미 등귀에 달아 이런 부분이  
있는데 점이 어떻게 찍혀 있냐면

00:04:50.708 --> 00:04:55.487  
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로는 나랏  
할 때 여기 점이 찍혔고요.

00:04:55.587 --> 00:05:00.739  
말 할 때 점이 두 개 찍히고, 싸  
점이 없고요, 미 점이 하나 있습니다.

00:05:00.839 --> 00:05:06.924  
그다음에 등귀에 달아  
이렇게 점이 찍혔거든요.

00:05:07.024 --> 00:05:09.426  
그러면 이거 읽을 때 어떻게  
읽냐면 낮게 읽죠.

00:05:09.526 --> 00:05:11.649  
점이 하나 찍혔으니까  
높게 읽어야 돼.

00:05:11.749 --> 00:05:13.611  
그런데 받침이 ㅅ이니까 어떻게?

00:05:13.711 --> 00:05:15.642

높으면서 짧게 닫는 소리에요.

00:05:15.742 --> 00:05:17.522

나랏 이렇게 읽어야 되지.

00:05:17.622 --> 00:05:23.332

말은 말 이렇게 되겠고, 싸는 내리는  
소리고, 미는 올리는 소리고.

00:05:23.432 --> 00:05:27.835

등은 왼쪽에 점이 없으니까 낮은  
소리고, 꺾은 높은 소리고,

00:05:27.935 --> 00:05:29.784

에도 높은 소리죠.

00:05:29.884 --> 00:05:33.867

꺾은 받침이 기이니까 좀  
짧게 끊어 읽어야 되죠.

00:05:33.967 --> 00:05:36.903

달아 할 때 아라고 하는  
게 점이 하나 있잖아요.

00:05:37.003 --> 00:05:41.499

그러면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 
나랏말싸미 등꺾에 달아

00:05:41.599 --> 00:05:43.308

뭐 이런 식으로 읽었다는 거예요.

00:05:43.408 --> 00:05:46.571

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 
조선시대 처음 만들었을 때

00:05:46.671 --> 00:05:48.453

이제 사대의식이 좀 강했잖아요.

00:05:48.553 --> 00:05:51.940

사대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 
발음하고 유사하게 발음하기 위해서

00:05:52.040 --> 00:05:53.684

이런 성조들이 표현됐어요.

00:05:53.784 --> 00:05:56.537

뭘 통해 표현했냐면  
방점을 통해 표현했죠.

00:05:56.637 --> 00:05:59.338

그런데 이 방점을 통해  
표현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

00:05:59.438 --> 00:06:01.938

편지를 쓴다고 생각하면 편지  
다 쓴 다음에 방점 찍기가

00:06:02.038 --> 00:06:04.413

얼마나 힘들겠어요,  
특히 전쟁 중에.

00:06:04.513 --> 00:06:07.484  
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사라진다,  
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06:07.584 --> 00:06:10.294  
이쪽으로 와서 또 설명해 볼게요.

00:06:10.394 --> 00:06:12.588  
성조를 표현했습니다.

00:06:12.688 --> 00:06:14.108  
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.

00:06:14.208 --> 00:06:17.094  
반치음이라고 하는 건 16세기부터  
약화되어 소실되었다.

00:06:17.194 --> 00:06:18.937  
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.

00:06:19.037 --> 00:06:21.205  
그다음에 옛 ㅇ은  
중성에서만 실현되고,

00:06:21.305 --> 00:06:25.416  
글꼴도 그냥 ㅇ으로 나중에  
합쳐지게 된 거죠.

00:06:25.516 --> 00:06:30.157  
그다음에 아래아가 점차 소실되었고,  
16세기부터는 어떻게 소실됐냐면

00:06:30.257 --> 00:06:33.915  
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아래아가  
주로 으로 변했고요.

00:06:34.015 --> 00:06:37.813  
그다음에 18세기부터 첫째 음절  
아래아가 주로 아로 변했다는 건데.

00:06:37.913 --> 00:06:39.120  
이게 조금 어렵죠?

00:06:39.220 --> 00:06:40.436  
이쪽으로 올게요.

00:06:40.536 --> 00:06:42.796  
마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.

00:06:42.896 --> 00:06:47.952  
이 마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 
16세기에는 둘째 음절에 아래아가

00:06:48.052 --> 00:06:49.961  
으로 바뀌었다니까  
첫 번째는 뭐로 바뀌었냐면

00:06:50.061 --> 00:06:51.698  
앞에 아래아는 그대로고요.

00:06:51.798 --> 00:06:53.107

마음 이렇게 되는 거죠.

00:06:53.207 --> 00:06:55.441

그다음에 18세기쯤에  
어떻게 되는 거냐면

00:06:55.541 --> 00:06:57.938

마음 이런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.

00:06:58.038 --> 00:07:01.052

그러니까 첫 번째 둘째 음절의  
아래아가 으로 바뀌었다는 거고,

00:07:01.152 --> 00:07:05.213

두 번째는 뭐냐면 첫째 음절의  
아래아가 아나 이런 소리로

00:07:05.313 --> 00:07:06.716

바뀌었다는 거죠.

00:07:06.816 --> 00:07:09.015

그다음에 어두의 ㄴ이 탈락했고요.

00:07:09.115 --> 00:07:10.311

즉, 두음 법칙이 변화됐는데.

00:07:10.411 --> 00:07:12.994

두음 법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 
됩니다, 여러분.

00:07:13.094 --> 00:07:16.266

문법 현상은 점차  
생긴다고 생각하면 돼요.

00:07:16.366 --> 00:07:19.390

예를 들어서 두음 법칙,  
예를 들어서 녀자라고 하면

00:07:19.490 --> 00:07:21.332

발음하기가 녀자, 어렵잖아요.

00:07:21.432 --> 00:07:25.345

그러니까 점점 발음하기 쉽게  
여자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로

00:07:25.445 --> 00:07:26.592

바뀌는 거죠.

00:07:26.692 --> 00:07:28.275

그다음에 구개음화도  
옛날에는 없었어요.

00:07:28.375 --> 00:07:31.403

구개음화도 옛날에는 해도디  
이랬는데, 점차 발음하다 보니까

00:07:31.503 --> 00:07:33.218

해돋이가 더 편하잖아요.

00:07:33.318 --> 00:07:36.423

그러니까 구개음화도 점차

생기는 거로 바뀌는 거죠.

00:07:36.523 --> 00:07:40.166  
문법 현상이 새로 생기는 거로  
바뀐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

00:07:40.266 --> 00:07:42.540  
이해되지죠, 여러분?

00:07:42.640 --> 00:07:46.593  
그리고 또 철저했던 것은 점점  
더 느슨해지는 건 사실이죠.

00:07:46.693 --> 00:07:49.457  
모음조화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 
때 아주 철저했거든요.

00:07:49.557 --> 00:07:51.301  
점점 느슨해지죠.

00:07:51.401 --> 00:07:52.549  
성조도 철저했죠?

00:07:52.649 --> 00:07:53.537  
점점 느슨해지죠.

00:07:53.637 --> 00:07:56.428  
이게 가장 변화된 양상이라고  
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07:56.528 --> 00:07:59.137  
그다음에 님금이  
임금으로 바뀌었고요.

00:07:59.237 --> 00:08:02.877  
방점이 사라지고, 18세기 전후로  
구개음화 현상이 전국적으로

00:08:02.977 --> 00:08:04.386  
나타나기 시작한다.

00:08:04.486 --> 00:08:08.464  
그러니까 이 문법 현상이라고 하는  
것은 점차 나타나는 거고요.

00:08:08.564 --> 00:08:12.940  
그다음에 처음에 철저했던 것은  
점차 느슨해진다, 문란해진다

00:08:13.040 --> 00:08:14.606  
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08:14.706 --> 00:08:15.978  
어휘 부분을 볼까요?

00:08:16.078 --> 00:08:19.113  
어휘는 현대에는 사라지고 없는  
고유어가 많이 쓰였으며,

00:08:19.213 --> 00:08:21.425  
지금은 사라진 글자들이

되게 많아요.

00:08:21.525 --> 00:08:24.621

한자어와 고유어가 경쟁했을 때 누가 더 힘이 셨냐면

00:08:24.721 --> 00:08:26.491

한자어가 더 힘이 셨거든요.

00:08:26.591 --> 00:08:29.526

그래서 처음에 많이 쓰였던 고유어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들이

00:08:29.626 --> 00:08:30.902

현실이었습니다.

00:08:31.002 --> 00:08:32.922

한자어가 유입되어 고유어처럼 쓰인 것도 있다.

00:08:33.022 --> 00:08:41.206

피, 가람, 온, 즈믄 이런 것들이 순우리말이었는데.

00:08:41.306 --> 00:08:43.880

이 피라는 단어보다는 산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잖아요.

00:08:43.980 --> 00:08:45.296

산은 한자어잖아요.

00:08:45.396 --> 00:08:46.850

가람, 강물이잖아요.

00:08:46.950 --> 00:08:49.933

강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니까 한자어가 더 많이 쓰이는 거로

00:08:50.033 --> 00:08:51.101

바뀌었다는 거죠.

00:08:51.201 --> 00:08:54.865

몽골어, 여진어에서 새로운 어휘가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.

00:08:54.965 --> 00:08:58.830

송골매 같은 경우도 새로운 어휘, 이제 차용어라고 해서

00:08:58.930 --> 00:09:00.472

차용어가 많이 들어오죠.

00:09:00.572 --> 00:09:03.114

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.

00:09:03.214 --> 00:09:06.182

피가 산으로, 가람이 강으로 바뀌었다는 거고요.

00:09:06.282 --> 00:09:08.301

어휘의 의미 변화도  
많이 일어나는데.

00:09:08.401 --> 00:09:11.981  
어엿하다는 원래 불쌍하다였는데  
아름답다는 의미로 바뀌었죠.

00:09:12.081 --> 00:09:13.667  
마찬가지예요, 여러분.

00:09:13.767 --> 00:09:16.771  
얼굴이라는 단어도 처음에는 몸  
전체를 뜻하는 단어였는데

00:09:16.871 --> 00:09:19.752  
지금은 안면이라는  
뜻으로만 바뀌었잖아요.

00:09:19.852 --> 00:09:22.500  
이것들이 바로 의미가  
축소된 겁니다.

00:09:22.600 --> 00:09:24.020  
의미가 축소된 단어도 있고요.

00:09:24.120 --> 00:09:26.461  
의미가 변화된 것도 있고,  
의미가 확대된 것도 있죠.

00:09:26.561 --> 00:09:30.533  
축소된 건 방금 설명 드렸던 것처럼  
얼굴이라는 단어가 가장 대표적이고.

00:09:30.633 --> 00:09:32.143  
확대된 건 뭐가 있을까요?

00:09:32.243 --> 00:09:34.152  
확대된 거는 왕이라는  
단어 잘 생각해 보세요.

00:09:34.252 --> 00:09:36.429  
왕은 옛날에 임금만  
뜻하는 거였어요.

00:09:36.529 --> 00:09:39.697  
그런데 오늘날에는 왕이  
임금을 뜻하기도 하지만,

00:09:39.797 --> 00:09:42.157  
또 뭐냐면 큰 것도 역시  
왕이라고 하잖아요.

00:09:42.257 --> 00:09:44.237  
왕뚜껑 뭐 이런 거  
있잖아요, 그렇죠?

00:09:44.337 --> 00:09:46.967  
왕뚜껑이네, 이런 거  
있잖아요, 그 왕뚜껑.

00:09:47.067 --> 00:09:50.439

그런데 옛날에 국밥집에서  
와, 이거 왕뚜껍이네 그러면

00:09:50.539 --> 00:09:51.991  
개는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죠.

00:09:52.091 --> 00:09:55.398  
그런데 지금은 그 왕이라는 단어를  
편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.

00:09:55.498 --> 00:09:58.843  
그다음에 주산 잘하는 사람  
이러면 주산왕, 암기왕,

00:09:58.943 --> 00:10:00.159  
이런 것들이 있죠?

00:10:00.259 --> 00:10:01.603  
디스코왕,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

00:10:01.703 --> 00:10:05.140  
잘하는 사람도 이제 왕이라는 단어로  
쓰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

00:10:05.240 --> 00:10:06.584  
옛날에는 엄두를 못 냈었잖아.

00:10:06.684 --> 00:10:09.416  
그런데 점차 왕이라는  
의미가 점차 확대되었다,

00:10:09.516 --> 00:10:11.421  
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.

00:10:11.521 --> 00:10:13.599  
많습니다.

00:10:13.699 --> 00:10:16.868  
이거는 선생님이 문법은  
하나하나 좀 정리를 할게요.

00:10:16.968 --> 00:10:18.229  
이거 칠판 좀 지우고요.

00:10:18.329 --> 00:10:19.957  
하나하나 좀 정리하면서  
설명하겠습니다.

00:10:20.057 --> 00:10:22.109  
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 
것 같아요, 그렇죠?

00:10:22.209 --> 00:10:23.318  
보세요.

00:10:23.418 --> 00:10:28.946  
주격 조사는 음운 환경에  
따라 이, 영 형태라고 해서

00:10:29.046 --> 00:10:30.647  
제로 주격이라고 합니다.

00:10:30.747 --> 00:10:32.195  
이거 먼저 설명을 할게요.

00:10:32.295 --> 00:10:33.506  
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고.

00:10:33.606 --> 00:10:37.775  
제일 첫 번째 주격 조사는  
아주 중요합니다, 여러분.

00:10:37.875 --> 00:10:40.455  
주격 조사는 세 가지의  
형태로 나타나요.

00:10:40.555 --> 00:10:42.065  
세 가지의 형태인데.

00:10:42.165 --> 00:10:47.413  
동그라미 있는 이, 동그라미가  
없는 이, 동그라미가 아예 없는,

00:10:47.513 --> 00:10:50.232  
표시가 아예 없는 체로  
주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

00:10:50.332 --> 00:10:53.656  
이는 어떨 때 쓰냐면, 동그라미  
있는 이는 어디에 쓰냐면

00:10:53.756 --> 00:10:56.785  
자음 뒤에서 주로  
쓰입니다, 자음 뒤에.

00:10:56.885 --> 00:11:01.250  
이는 모음 뒤에서 주로 쓰이고요.

00:11:01.350 --> 00:11:03.437  
특히 체로 주격이라고  
하는 거 있잖아요.

00:11:03.537 --> 00:11:06.952  
이 체로 주격은 이  
계열 모음 뒤에.

00:11:07.052 --> 00:11:11.528  
그러니까 이 계열의 모음이 있으면 굳이  
더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.

00:11:11.628 --> 00:11:17.145  
그러니까 이 모음이 앞에  
나오거나 이 모음 계열이 나오면

00:11:17.245 --> 00:11:21.663  
체로 주격, 주격 조사가 없는데도  
주격 조사처럼 읽어야 되는 거예요.

00:11:21.763 --> 00:11:23.816  
무슨 뜻이냐, 예를 들어 볼게요.

00:11:23.916 --> 00:11:26.346

이거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 
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.

00:11:26.446 --> 00:11:29.674  
나랏말싸미 할 때 아까  
선생님이 잠깐 썼었는데.

00:11:29.774 --> 00:11:31.649  
말싸미 이걸 볼까요?

00:11:31.749 --> 00:11:35.267  
옛날에 15세기는  
이어적기를 썼거든요.

00:11:35.367 --> 00:11:37.972  
이어적기가 그냥 발음대로 쓰는  
걸 이어적기라고 하는데,

00:11:38.072 --> 00:11:40.739  
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운  
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.

00:11:40.839 --> 00:11:44.137  
여기는 동그라미 있는 이  
주격 조사가 쓰였습니다.

00:11:44.237 --> 00:11:45.805  
어려울 겁니다, 보세요.

00:11:45.905 --> 00:11:51.840  
예를 들면 말싸미라는 단어가 있고,  
플러스 앞이 ㅁ으로 끝났잖아요.

00:11:51.940 --> 00:11:54.797  
자음으로 끝났으니까 동그라미  
이가 쓰인 거예요.

00:11:54.897 --> 00:12:00.149  
동그라미 이가 쓰였는데,  
이게 연음현상에 의해서,

00:12:00.249 --> 00:12:02.869  
그러니까 이어적기에 의해서  
말싸미 이렇게 되는 거죠.

00:12:02.969 --> 00:12:07.003  
그러니까 말싸미라는 단어 속에는  
동그라미 있는 이 주격 조사가

00:12:07.103 --> 00:12:08.847  
쓰였다는 거 확인할  
수 있어야 돼요.

00:12:08.947 --> 00:12:12.174  
그다음에 노미라는 단어도  
있어요, 옛날에.

00:12:12.274 --> 00:12:13.763  
놈 플러스 이에요.

00:12:13.863 --> 00:12:16.736

옛날에 이 높이라는 단어는  
사람을 뜻하는 단어였는데,

00:12:16.836 --> 00:12:18.440  
지금은 비속어로 쓰였죠.

00:12:18.540 --> 00:12:22.020  
노미라고 하는 게 ㄴ이  
있으니까 이라고 하는 게

00:12:22.120 --> 00:12:23.961  
동그라미 있는 이가 들어가겠죠.

00:12:24.061 --> 00:12:26.030  
이런 주격 조사가 있었다는 거.

00:12:26.130 --> 00:12:30.048  
그다음에 그냥 동그라미 없는  
이는 어떻게 쓰였냐면요.

00:12:30.148 --> 00:12:32.016  
한자를 좀 쓸 겁니다, 선생님이.

00:12:32.116 --> 00:12:35.433  
남 자예요, 자 자예요, 자.

00:12:35.533 --> 00:12:38.360  
남자라는 한자가 쓰였을  
때는 어떻게 쓰냐면요.

00:12:38.460 --> 00:12:41.184  
그냥 옆에다 작대기 하나,  
동그라미 없는 작대기 하나를

00:12:41.284 --> 00:12:42.739  
이렇게 내려쓰는 거예요.

00:12:42.839 --> 00:12:44.198  
한자일 때는 이렇게 쓰고요.

00:12:44.298 --> 00:12:45.959  
이게 만약에 한글로 쓰여 있다.

00:12:46.059 --> 00:12:51.271  
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애들아,  
남자 이, 남재 이렇게 씁니다.

00:12:51.371 --> 00:12:53.579  
아예 남재 이렇게 써요.

00:12:53.679 --> 00:12:56.342  
남자 플러스 이,  
남재 이렇게 씁니다.

00:12:56.442 --> 00:12:57.548  
이게 참 특이하죠.

00:12:57.648 --> 00:13:00.015  
한자일 때는 그렇고, 한자가  
아닐 때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

00:13:00.115 --> 00:13:01.505  
기억하시면 되겠고.

00:13:01.605 --> 00:13:03.989  
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 
이런 거 볼까요?

00:13:04.089 --> 00:13:08.422  
불휘 기픈 나무가, 뭐  
이런 게 있어요.

00:13:08.522 --> 00:13:11.006  
불휘 기픈 나무라고 하는  
게 있는데, 보세요.

00:13:11.106 --> 00:13:14.075  
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하나면  
이거는 뿌리라는 뜻이에요.

00:13:14.175 --> 00:13:19.161  
아, 뿌리가 기픈은 이어적기가 된  
거니까 깊은 남간은 나무는,

00:13:19.261 --> 00:13:20.798  
이런 뜻이거든요.

00:13:20.898 --> 00:13:23.020  
뿌리 깊은 나무는 이렇게 썼어요.

00:13:23.120 --> 00:13:25.287  
그러면 뿌리 깊은  
나무는이라고 썼을 때

00:13:25.387 --> 00:13:29.567  
그러면 이거는 선생님, 뿌리 깊은 나무는  
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요.

00:13:29.667 --> 00:13:30.985  
절대 틀립니다, 여러분.

00:13:31.085 --> 00:13:33.944  
어떻게 써야 되냐면 불휘 할 때  
여기가 이 모습으로 끝났잖아요.

00:13:34.044 --> 00:13:36.554  
그러니까 여기가 해석할  
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

00:13:36.654 --> 00:13:41.746  
뿌리가, 가라고 하는 주격 조사  
형태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.

00:13:41.846 --> 00:13:44.490  
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격  
조사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

00:13:44.590 --> 00:13:45.950  
제로 주격이 들어가 있는 거죠.

00:13:46.050 --> 00:13:47.423  
참 헛갈렸겠죠, 여러분?

00:13:47.523 --> 00:13:51.139

그래서 나중에 근대 국어  
되면 어떻게 생기냐면

00:13:51.239 --> 00:13:54.492

이, 동그라미 있는  
이로 통일되는 거고.

00:13:54.592 --> 00:13:57.361

그다음에 가라고 하는  
조사도 생기는 거죠.

00:13:57.461 --> 00:14:00.825

가라고 하는 조사도  
새로 생기게 됩니다.

00:14:00.925 --> 00:14:07.201

그다음에 이쪽으로 오셔서  
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.

00:14:07.301 --> 00:14:13.732

두 번째 보면 체언이 조사와 결합할  
때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어요.

00:14:13.832 --> 00:14:17.598

체언이 조사와 결합할 때 형태가  
바뀌는 경우가 있었는데요.

00:14:17.698 --> 00:14:19.634

나모+이에요.

00:14:19.734 --> 00:14:25.491

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모라는  
단어는, 나모라는 단어는

00:14:25.591 --> 00:14:27.575

체언이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.

00:14:27.675 --> 00:14:33.832

체언이 형태가 아예 바뀌는 게 어떤  
거냐면 나모가 쓰이기도 하고,

00:14:33.932 --> 00:14:35.260

이쪽으로 올게요, 여러분.

00:14:35.360 --> 00:14:36.346

여기 보세요.

00:14:36.446 --> 00:14:40.582

나모라는 단어도 있고,  
남+기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.

00:14:40.682 --> 00:14:44.161

이 나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 
뒤에 뭐가 붙었을 때?

00:14:44.261 --> 00:14:47.800

뒤에 자음이 붙었을 때는  
나모라는 단어를 쓰고요.

00:14:47.900 --> 00:14:52.204

뒤에가 모임일 때는  
남기이라는 단어로 써요.

00:14:52.304 --> 00:14:53.473

이게 참 어렵죠?

00:14:53.573 --> 00:14:57.843

예를 들어서 나모 끝에라고  
하면, 옛날에는 스 썼거든?

00:14:57.943 --> 00:14:59.334

끝이라는 단어를 스을 썼거든.

00:14:59.434 --> 00:15:00.480

그러면 뭐야?

00:15:00.580 --> 00:15:02.660

뒤가 자음으로 시작하잖아요.

00:15:02.760 --> 00:15:05.387

그러니까 나모의 형태로 썼고.

00:15:05.487 --> 00:15:09.566

그다음에 안이라고 하는  
조사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

00:15:09.666 --> 00:15:12.149

모임으로 시작하는  
조사는 어떻게 쓰냐면

00:15:12.249 --> 00:15:14.668

남간, 이런 형태로 썼다는 거죠.

00:15:14.768 --> 00:15:18.632

그러니까 이게 뒤가 어떤  
형태로 오느냐에 따라서

00:15:18.732 --> 00:15:20.309

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?

00:15:20.409 --> 00:15:22.698

체언조차 바뀌었다는 거죠.

00:15:22.798 --> 00:15:25.808

명사조차 바뀌었다는  
뜻입니다, 아시겠죠?

00:15:25.908 --> 00:15:27.855

그게 근대 국어 때는 사라지죠.

00:15:27.955 --> 00:15:32.179

단독으로 쓰일 때는 없었던 ㅇ이  
모임으로 시작하는 조사와

00:15:32.279 --> 00:15:35.647

결합하면 나타나는 ㅇ 종성  
체언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.

00:15:35.747 --> 00:15:37.034

이쪽으로 잠깐 올까요?

00:15:37.134 --> 00:15:41.037

ㅎ 중성 체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번, 여기다 쓸게요.

00:15:41.137 --> 00:15:46.999

ㅎ 중성 체언이라고 하면 혼자 쓰일 때는 그냥 써요.

00:15:47.099 --> 00:15:51.021

그런데 어떤 단어가 왔을 때는 그 안에 ㅎ이 숨겨져 있다가

00:15:51.121 --> 00:15:52.549

씩 나타나는 거예요.

00:15:52.649 --> 00:15:56.198

어디라 더디던 돌코,  
누리라 맞히던 돌코.

00:15:56.298 --> 00:15:58.300

청산별곡의 한 구절인데.

00:15:58.400 --> 00:16:00.400

돌이라는 단어는 혼자 쓸 때는 이렇게 써요.

00:16:00.500 --> 00:16:04.247

그런데 뒤에 고라고 하는 조사가 쓰이면 여기 안에 숨겨져 있던

00:16:04.347 --> 00:16:06.161

ㅎ이 짝 나타나는 거예요.

00:16:06.261 --> 00:16:07.402

어떻게 나타나느냐?

00:16:07.502 --> 00:16:09.253

ㅎ이 나타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?

00:16:09.353 --> 00:16:11.345

돌코 이렇게 되는 거죠.

00:16:11.445 --> 00:16:14.205

이 ㅎ 받침 체언, ㅎ 중성 체언이라고 하는 건

00:16:14.305 --> 00:16:15.641

현대 국어도 있다, 애들아.

00:16:15.741 --> 00:16:18.075

우리 안과 밖을 뜻할 때는 안이잖아요.

00:16:18.175 --> 00:16:21.815

그런데 안과 밖이 더해지면 이거 어떻게 써요, 여러분?

00:16:21.915 --> 00:16:23.664

안팎이라고 쓰잖아요.

00:16:23.764 --> 00:16:25.931

그러면 안 속에 흥이  
숨겨져 있다는 얘기야.

00:16:26.031 --> 00:16:28.465

흥과 비이 만나서  
뽀이 되는 거죠.

00:16:28.565 --> 00:16:29.536

이해되겠니, 애들아?

00:16:29.636 --> 00:16:30.891

수하고 개예요.

00:16:30.991 --> 00:16:34.176

수하고 개가 만났어, 그러면  
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?

00:16:34.276 --> 00:16:36.457

수캐 이렇게 되는 거죠, 수캐.

00:16:36.557 --> 00:16:39.264

수 속에 흥이 숨겨져 있는 것이

00:16:39.364 --> 00:16:43.034

바로 흥 중성 체언이라고  
하는 겁니다, 아시겠죠?

00:16:43.134 --> 00:16:44.807

이쪽으로 또 와서.

00:16:44.907 --> 00:16:48.892

1인칭 주어와 호응하는 선어말  
어미 오, 우의 형태가 나타났다.

00:16:48.992 --> 00:16:50.603

이건 잘 시험에 안 나오는데.

00:16:50.703 --> 00:16:55.698

맹가노니라고 할 때 맹갈다+나+오라고  
하는 선어말 어미가

00:16:55.798 --> 00:16:57.426

1인칭일 때 쓰였다는 거죠.

00:16:57.526 --> 00:16:59.072

그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, 여러분.

00:16:59.172 --> 00:17:03.458

객체를 높일 때 선어말 어미가  
삽, 잡, 좇을 사용했었어요.

00:17:03.558 --> 00:17:06.876

즉, 다시 말하면 삽, 잡,  
좇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

00:17:06.976 --> 00:17:08.851

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입니다.

00:17:08.951 --> 00:17:10.248

이쪽으로 오실게요.

00:17:10.348 --> 00:17:16.291

여기에서 보면 네 번째 잡,  
잡, 잡의 형태가 나오는데.

00:17:16.391 --> 00:17:19.409

이건 뭐냐면 객체 높임  
선어말 어미입니다.

00:17:19.509 --> 00:17:23.722

어머니께 물건을 받다라고 했을  
때, 어머니께 어떤 물건을

00:17:23.822 --> 00:17:27.598

받다라고 하면 옛날에는 어떻게  
썼냐면 이렇게 썼어요.

00:17:27.698 --> 00:17:29.841

받잡다 이렇게 썼습니다.

00:17:29.941 --> 00:17:32.822

즉, 잡이라고 하는 게  
들어가면서 어머니께,

00:17:32.922 --> 00:17:35.203

앞에 어머니께라는  
말을 한번 써볼까요?

00:17:35.303 --> 00:17:37.853

어머니께라고 해서 이게  
객체 높임이거든요.

00:17:37.953 --> 00:17:40.803

그 객체를 높여주는 거죠,  
잡이라고 하는 게.

00:17:40.903 --> 00:17:46.500

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잡,  
잡, 잡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

00:17:46.600 --> 00:17:48.468

이게 근대 국어 되면서 사라져요.

00:17:48.568 --> 00:17:50.482

이게 뭐로 바뀌었냐면요, 여러분.

00:17:50.582 --> 00:17:55.645

~습니다의 형태로 바뀌어서  
사라지게 되는 겁니다.

00:17:55.745 --> 00:17:59.062

이게 바로 중세 국어  
문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

00:17:59.162 --> 00:18:00.688

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18:00.788 --> 00:18:03.708

그럼 이것과 비교해서 근대  
국어 문법은 어떻게 나타나는지

00:18:03.808 --> 00:18:05.910  
한번 보겠습니다, 아시겠죠?

00:18:06.010 --> 00:18:10.543  
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 
왼쪽 부분의 증세 국어 문법을

00:18:10.643 --> 00:18:14.277  
오른쪽에 근대 국어로 어떻게  
바뀌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.

00:18:14.377 --> 00:18:18.461  
주격 조사 가가 출연해서 이  
계열 주격 조사와 구분되었다.

00:18:18.561 --> 00:18:21.323  
근대 국어 때는 뭐가  
쓰였다는 거예요?

00:18:21.423 --> 00:18:24.552  
주격 조사 가의 형태가  
새로 생겨나게 되었다.

00:18:24.652 --> 00:18:26.448  
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.

00:18:26.548 --> 00:18:31.231  
그다음에 1인칭 주어에 호응하던  
선어말 어미 오가 있었잖아요.

00:18:31.331 --> 00:18:36.306  
이 오가 사라졌다, 이게 바로  
근대 국어의 특징입니다.

00:18:36.406 --> 00:18:39.740  
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삽,  
잡, 줍의 기능이 소멸되면서

00:18:39.840 --> 00:18:42.834  
듣는 이를 높이고 공손하게  
대하는 상대 높임.

00:18:42.934 --> 00:18:46.076  
아까 선생님이 습니다라고  
얘기했던 거 기억나요?

00:18:46.176 --> 00:18:47.329  
삽, 잡 비슷하잖아요.

00:18:47.429 --> 00:18:49.705  
삽, 이게 습니다하고 비슷하잖아요.

00:18:49.805 --> 00:18:53.395  
이게 바로 뭐냐면 상대  
높임법에 해당하는 거죠.

00:18:53.495 --> 00:18:56.462  
상대 높임법의 형태로  
나타난다는 뜻입니다.

00:18:56.562 --> 00:19:01.980  
비계 활용과 반치음계 활용이 불규칙  
활용으로 변했다고 돼 있는데

00:19:02.080 --> 00:19:06.562  
이거는 조금 이따 선생님이 유형  
연습 1번 문제로, 보세요.

00:19:06.662 --> 00:19:11.484  
이거 계열하고, 반치음 계열하고  
불규칙 용언으로 나타나는데.

00:19:11.584 --> 00:19:14.702  
그 불규칙 용언이 유형 연습으로  
첫 번째 나타날 거거든요.

00:19:14.802 --> 00:19:19.149  
그 부분 다시 한번 볼 때  
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

00:19:19.249 --> 00:19:20.908  
세 번째 볼까요?

00:19:21.008 --> 00:19:23.869  
세 번째는 표기법입니다.

00:19:23.969 --> 00:19:27.805  
일반적으로 소리 나는 대로  
표기하는 이어적기가 사용됐어요.

00:19:27.905 --> 00:19:30.792  
말싸미, 쭈메 이런  
식으로 나타나는 거죠.

00:19:30.892 --> 00:19:32.735  
받침에는 주로 8개의 초성자.

00:19:32.835 --> 00:19:36.067  
이게 바로 뭐냐고 하는 거냐면  
8중성법이라고 합니다.

00:19:36.167 --> 00:19:39.876  
특히 여기에서 여러분, 맨 마지막  
ㅇ은 동그라미 있는 ㅇ이다

00:19:39.976 --> 00:19:41.411  
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19:41.511 --> 00:19:45.327  
받침에는 8중성법을 주로 활용했다는  
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

00:19:45.427 --> 00:19:47.007  
표기법입니다.

00:19:47.107 --> 00:19:50.936  
그다음에 이제 근대 국어는 이어적기가  
끊어적기로 바뀌는 과정에서

00:19:51.036 --> 00:19:54.403  
과도기적 현상으로 거듭적기,

중철이라고도 하고,

00:19:54.503 --> 00:19:57.186

혼철이라고도 하는데,  
그것이 등장한 거죠.

00:19:57.286 --> 00:20:00.507

즉, 니믈이라고 하는 게  
이어적기인데, 님을,

00:20:00.607 --> 00:20:02.820

현대 국어는 님을 이렇게 쓰잖아요.

00:20:02.920 --> 00:20:07.791

중간 입장으로 님믈이라고  
해서 중철, 혼철이라고 해서

00:20:07.891 --> 00:20:09.227

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.

00:20:09.327 --> 00:20:11.864

받침에는 주로 7개의  
초성자가 사용되었다.

00:20:11.964 --> 00:20:15.422

즉, 근대 국어 때는  
7중성법이 쓰였습니다.

00:20:15.522 --> 00:20:19.078

7중성법이 쓰여서 뭐가 빠지게  
되냐면 ㄷ이 빠지게 돼요.

00:20:19.178 --> 00:20:20.067

특이하죠?

00:20:20.167 --> 00:20:22.357

ㅅ이 빠질 것 같은데  
ㄷ이 빠지게 됩니다.

00:20:22.457 --> 00:20:26.472

이게 바로 이제 표기법의  
특징입니다, 아시겠죠?

00:20:26.572 --> 00:20:29.205

그러면 칠판 정리하고  
다시 시작하겠습니다.

00:20:29.305 --> 00:20:32.762

두 번째는 여러분,  
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겁니다.

00:20:32.862 --> 00:20:34.673

이게 참 엄청난 일인데요, 여러분.

00:20:34.773 --> 00:20:38.598

옛날에 한번 정치권에서 논란이  
있었던 적이 있었어요.

00:20:38.698 --> 00:20:41.600

뭐냐면 우리 10월  
9일 한글날이잖아요.

00:20:41.700 --> 00:20:45.743

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없애자,  
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.

00:20:45.843 --> 00:20:48.697

공휴일에서 없애자 해서 한  
한 해인가 두 해 정도

00:20:48.797 --> 00:20:50.610

공휴일에서 없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

00:20:50.710 --> 00:20:53.830

그때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했던  
게 뭐냐면 몇 년도인지

00:20:53.930 --> 00:20:56.368

기억도 잘 안 납니다만  
뭐라고 얘기했냐면

00:20:56.468 --> 00:21:02.548

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자기가  
만든 글자, 글자를 만든 날을

00:21:02.648 --> 00:21:06.264

기념으로 해서 쉬는 날은 없다  
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

00:21:06.364 --> 00:21:08.402

그러니까 그래서 공휴일  
없애자라는 논리였죠.

00:21:08.502 --> 00:21:09.816

그래서 한 2년 정도 없어졌다.

00:21:09.916 --> 00:21:11.442

그런데 다시 또 논란이 붙은 거야.

00:21:11.542 --> 00:21:15.558

쉬지 않으면 공휴일이 아니면  
이 훈민정음 한글에 대해서

00:21:15.658 --> 00:21:18.318

사람들이 인식을 잘 안 하잖아요.

00:21:18.418 --> 00:21:20.798

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 
이제 인식을 잘 안 하고

00:21:20.898 --> 00:21:23.407

이런 염려가 있으니까 다시  
공휴일로 하면서 얘기했는데.

00:21:23.507 --> 00:21:25.546

또 역시 정치권에서  
뭐라고 얘기했냐면

00:21:25.646 --> 00:21:30.623

어느 나라에서도 글자 만든 날을  
기념해서 쉬는 날은 없다라고

00:21:30.723 --> 00:21:32.512

얘기했는데, 어떤 학자가  
정말 멋있게 한마디 했어요.

00:21:32.612 --> 00:21:36.167

뭐냐면 이 세계 어떤 나라,  
어떤 세계 어떤 나라도

00:21:36.267 --> 00:21:39.639

자기의 글자를 스스로 만든  
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.

00:21:39.739 --> 00:21:45.413

즉, 다시 말하면 훈민정음은 창제자,  
만든 사람이 정확하게 표기된,

00:21:45.513 --> 00:21:50.527

그러니까 정확하게 나타난  
글자가 바로 훈민정음이에요.

00:21:50.627 --> 00:21:52.707

세종대왕이라고 명확하게 알잖아요.

00:21:52.807 --> 00:21:54.620

영어는 누가 만든지  
모르죠, 여러분?

00:21:54.720 --> 00:21:57.805

일본어도 누가 만든지 모르고,  
중국어도 누가 만든지를 모르거든요.

00:21:57.905 --> 00:22:01.726

그런데 이 한글만큼은  
창제 날짜도 정확하고,

00:22:01.826 --> 00:22:05.392

만든 사람도 정확하니까 당연히  
세계 어떤 언어보다도

00:22:05.492 --> 00:22:07.886

뛰어난 언어니까 그것을  
기념해서 쉬어야 된다.

00:22:07.986 --> 00:22:09.716

우리는 좋잖아요, 쉬니까, 그렇죠?

00:22:09.816 --> 00:22:12.915

아무튼 그런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 
게 정말 엄청난 글자인 거죠.

00:22:13.015 --> 00:22:14.146

갑니다.

00:22:14.246 --> 00:22:18.397

훈민정음 창제 시기를 보면 세종  
25년, 1443년에 만들어졌고.

00:22:18.497 --> 00:22:21.514

의미는 뭐냐면  
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.

00:22:21.614 --> 00:22:23.688

훈민정음이라는 책도  
있어요, 여러분.

00:22:23.788 --> 00:22:26.735

그다음에 문자 자체를 또  
훈민정음이라고도 합니다.

00:22:26.835 --> 00:22:30.565

문자 체계의 명칭은 훈민정음, 백성을  
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고,

00:22:30.665 --> 00:22:33.767

책 이름은 이 훈민정음에  
대한 해설서를

00:22:33.867 --> 00:22:36.156

아예 훈민정음이라는  
책으로 만든 거예요.

00:22:36.256 --> 00:22:37.866

그래서 명칭이 두 가지예요.

00:22:37.966 --> 00:22:40.522

그다음에 해례본하고 언해본인데.

00:22:40.622 --> 00:22:43.267

해례본이라고 하는 건  
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.

00:22:43.367 --> 00:22:45.487

처음에 이제 한글을 딱 만들었어요.

00:22:45.587 --> 00:22:49.719

만들고 나서 이 한글에 대해서  
해석을 해줘야 되잖아.

00:22:49.819 --> 00:22:53.347

예를 들어서 ㄱ이라고 하면  
사람들이 처음에 이 글자를 보고

00:22:53.447 --> 00:22:54.920

이게 뭔지 잘 모를 거 아니예요.

00:22:55.020 --> 00:22:58.804

모르니까 이걸 설명해줘야 되는데,  
뭐로 설명할 수밖에 없을까요?

00:22:58.904 --> 00:23:01.734

당연히 한자로 설명할 수밖에  
없잖아요, 그렇죠?

00:23:01.834 --> 00:23:04.141

그전에 한자밖에 안 썼으니까.

00:23:04.241 --> 00:23:07.326

한글 처음 만들고 난 다음에 ㄱ,  
ㄴ 이거 설명할 수 없잖아요.

00:23:07.426 --> 00:23:12.014

그래서 ㄱ을 설명하는 글자, 이게

예의, 해례, 정인지 서라고 해서

00:23:12.114 --> 00:23:13.959  
이게 바로 해례본입니다.

00:23:14.059 --> 00:23:17.591  
이 기은 어떻게 설명해놨냐면  
군 자, 여러분 군 자 알죠?

00:23:17.691 --> 00:23:18.729  
임금 군 자.

00:23:18.829 --> 00:23:21.067  
군 자, 이게 임금 군 자잖아요.

00:23:21.167 --> 00:23:24.528  
군 자 발음할 때 첫소리에 나오는  
소리를 기이라고 한다.

00:23:24.628 --> 00:23:25.862  
이렇게 설명해준 거죠.

00:23:25.962 --> 00:23:28.783  
ㄴ도 어떤 글자의 첫소리에  
나오는 글자를 ㄴ이라고 한다,

00:23:28.883 --> 00:23:31.112  
이렇게 설명을 해준 게  
바로 해례본입니다.

00:23:31.212 --> 00:23:33.941  
그거를 이제 나중에 한글로  
번역한 게 바로 뭐냐면

00:23:34.041 --> 00:23:37.685  
예의 부분만 한글로 풀이를  
해준 게 바로 언해본이죠.

00:23:37.785 --> 00:23:40.172  
우리가 알고 있는 나랏말싸미  
등궐에달아 문자와로

00:23:40.272 --> 00:23:41.941  
서르 사맛디 아니할쌔.

00:23:42.041 --> 00:23:44.670  
그게 바로 훈민정음  
언해본이 되는 겁니다.

00:23:44.770 --> 00:23:46.229  
한글을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요.

00:23:46.329 --> 00:23:49.320  
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 
세종대왕이 만들고 나서

00:23:49.420 --> 00:23:52.676  
세종대왕 사후에, 세종대왕  
그다음이 바로 누구예요?

00:23:52.776 --> 00:23:53.779

세조잖아요.

00:23:53.879 --> 00:23:57.950

세조가 바로 훈민정음에 대한.

00:23:58.050 --> 00:24:04.861

태정태세문단세, 문중,  
단중 다음에 세조잖아요.

00:24:04.961 --> 00:24:08.000

세조 때 이 언해본이  
만들어졌습니다.

00:24:08.100 --> 00:24:10.900

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지금  
언해본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.

00:24:11.000 --> 00:24:13.093

거기에서 세 가지 정신이 있는데요.

00:24:13.193 --> 00:24:15.797

세 가지 정신이 있는데, 제가  
쭉 읽어보면서 얘기할게요.

00:24:15.897 --> 00:24:18.075

외우고 있는지, 잘 외우고  
있는지 모르겠는데.

00:24:18.175 --> 00:24:21.213

나랏말싸미 등꺀에달아 문자와로  
서르 사맛디 아니할쎄.

00:24:21.313 --> 00:24:26.215

중국과 달라서 문자가 서로 통하지  
아니하므로 그래서 문자 만들었다.

00:24:26.315 --> 00:24:28.350

자주정신입니다, 자주정신.

00:24:28.450 --> 00:24:31.304

어리석은 백성이  
말하고자 훌빠 이셔도,

00:24:31.404 --> 00:24:34.275

자기 뜻을 시러 퍼디  
못할노미 하니라.

00:24:34.375 --> 00:24:37.252

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한 사람이  
많다, 그래서 내가 만들었다.

00:24:37.352 --> 00:24:38.339

애민 정신이고요.

00:24:38.439 --> 00:24:43.999

사람마다 하여 날마다 쉬이니겨 날로  
브쓰메 편하키 하고져 할따라미니라.

00:24:44.099 --> 00:24:45.317

그게 바로 실용 정신입니다.

00:24:45.417 --> 00:24:47.810

그래서 자주정신, 애민  
정신, 실용 정신.

00:24:47.910 --> 00:24:50.098

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런 거야.

00:24:50.198 --> 00:24:54.760

내가 28자를 땡가노니 이렇게 해서  
창조 정신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다.

00:24:54.860 --> 00:24:56.600

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.

00:24:56.700 --> 00:25:00.532

즉, 다시 말하면 자주정신, 애민  
정신, 창조 정신, 실용 정신.

00:25:00.632 --> 00:25:02.903

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 
거예요, 아시겠죠?

00:25:03.003 --> 00:25:05.069

볼까요?

00:25:05.169 --> 00:25:09.204

그러면 중세 국어에서는 뭘  
사용해서 성조 표시하였다.

00:25:09.304 --> 00:25:11.288

방점을 사용해서 성조를  
표현했습니다.

00:25:11.388 --> 00:25:14.438

뜯, 쓰다, 때는 중세  
국어, 근대 국어의 특징.

00:25:14.538 --> 00:25:16.571

즉, 중국어의 특징을 보여주죠.

00:25:16.671 --> 00:25:17.730

그게 뭘데요?

00:25:17.830 --> 00:25:19.778

어두 자음군이 쓰였다는 거거든요.

00:25:19.878 --> 00:25:21.712

그러니까 중세 국어의 특징이죠.

00:25:21.812 --> 00:25:25.960

그다음에 삼, 잡, 줍은 근대 국어에서도  
객체 높임 선어말 아닙니다.

00:25:26.060 --> 00:25:29.619

이때는 칭자 높이는 상대  
높임의 뜻으로 쓰였습니다.

00:25:29.719 --> 00:25:33.676

10세기부터 주격 조사 가와 이  
계열의 주격 조사와 구별되어

00:25:33.776 --> 00:25:35.259  
쓰이기 시작했다고 했는데, X죠.

00:25:35.359 --> 00:25:39.246  
언제부터 쓰였다고 했냐면 근대  
국어 시기에 쓰였으니까요.

00:25:39.346 --> 00:25:40.949  
10세기는 말도 안 되죠.

00:25:41.049 --> 00:25:45.012  
10세기는 고려 건국 때가  
바로 10세기거든요.

00:25:45.112 --> 00:25:46.333  
발음이 좀 그러네요.

00:25:46.433 --> 00:25:50.075  
5번 보면 중세 국어에서는 받침에  
주로 8개의 초성자를 사용한 반면,

00:25:50.175 --> 00:25:53.837  
근대 국어에서는 받침에 주로 7개의  
초성자를 사용하였다, 맞습니다.

00:25:53.937 --> 00:25:56.989  
8종성법, 7종성법이라고  
해서 만들어졌어요.

00:25:57.089 --> 00:26:00.190  
6번 보면 18세기 전후로 구개음화  
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, 맞습니다.

00:26:00.290 --> 00:26:04.330  
새로운 음운 현상이 나타난 것은  
바로 근대 국어라고 하는 거죠.

00:26:04.430 --> 00:26:06.750  
훈민정음 창제 정신은 바로 뭐예요?

00:26:06.850 --> 00:26:10.295  
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주정신,  
애민 정신, 실용 정신.

00:26:10.395 --> 00:26:14.460  
세 가지 기억하시고, 학교별로 창조  
정신이라고 하는 학교도 있다는 거

00:26:14.560 --> 00:26:16.666  
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

00:26:16.766 --> 00:26:21.123  
다음 보면 유형 1번 문제를  
보면 아주아주 어렵습니다.

00:26:21.223 --> 00:26:25.433  
여러분이 아마 문법 문제 푸는  
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

00:26:25.533 --> 00:26:27.245  
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.

00:26:27.345 --> 00:26:29.165  
이게 가장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.

00:26:29.265 --> 00:26:31.080  
가장 어려웠었고요.

00:26:31.180 --> 00:26:34.366  
학생들이 이걸 답을 어떻게  
찾아낼지도 모를 정도로 상당히 좀

00:26:34.466 --> 00:26:35.873  
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입니다.

00:26:35.973 --> 00:26:37.384  
같이 한번 가볼게요, 여러분.

00:26:37.484 --> 00:26:40.429  
1번 보면 위 자료에 대한  
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26:40.529 --> 00:26:44.991  
2번을 보면 현대 국어  
용언들의 15세기 중엽 이전과

00:26:45.091 --> 00:26:48.472  
17세기 초엽에서의 활용형을  
바르게 추정하는 것은?

00:26:48.572 --> 00:26:52.904  
즉, 다시 말하면 15세기 중엽  
이전이라고 하면 중세 국어 때 어땠고,

00:26:53.004 --> 00:26:55.881  
17세기 초엽이라고 하면  
근대 국어 때 어땠다.

00:26:55.981 --> 00:26:58.070  
그걸 한번 비교해 봐라  
이런 문제입니다.

00:26:58.170 --> 00:26:59.279  
가볼까요, 여러분?

00:26:59.379 --> 00:27:04.656  
길이 좁다와 이웃을 돕다는 어간의  
끝이 비으로 똑같잖아요, 그렇지요?

00:27:04.756 --> 00:27:06.294  
비, 비으로 똑같잖아요.

00:27:06.394 --> 00:27:14.853  
그런데 좁다는 좁고, 좁아로 활용하고  
돕다는 돕고, 도와로 활용합니다.

00:27:14.953 --> 00:27:17.442  
여러분, 이걸 뭐라고 하나면  
특히 돕다 같은 경우는

00:27:17.542 --> 00:27:19.862  
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고요.

00:27:19.962 --> 00:27:22.931

좁다 같은 경우는 규칙  
활용이라고 하죠.

00:27:23.031 --> 00:27:26.013

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도와라고  
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잖아요.

00:27:26.113 --> 00:27:27.331

그게 왜 그럴까?

00:27:27.431 --> 00:27:30.025

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 
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.

00:27:30.125 --> 00:27:33.668

즉, 다시 말하면 자음으로  
활용하는 형태는 똑같아요.

00:27:33.768 --> 00:27:37.843

그런데 모음으로 활용되는  
형태는 다르단 말이야.

00:27:37.943 --> 00:27:40.279

그 이유가 뭘까 한번  
고민해 보는 거죠.

00:27:40.379 --> 00:27:41.470

그다음 볼게요.

00:27:41.570 --> 00:27:45.401

그리고 보니까 신을 벗다와  
노를 젓다도 어간의 끝이

00:27:45.501 --> 00:27:49.106

ㅅ으로 똑같은데 벗다는  
벗어로 활용하고.

00:27:49.206 --> 00:27:51.920

특히 모음으로 시작할 때 벗어,  
ㅅ이 안 바뀌잖아요.

00:27:52.020 --> 00:27:56.509

그런데 젓다는 저어로 활용해서  
역시 또 마찬가지로 모음으로

00:27:56.609 --> 00:27:58.531

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 
활용형이 달라.

00:27:58.631 --> 00:28:00.064

핵심은 바로 뭐야?

00:28:00.164 --> 00:28:08.494

모음 시작으로 활용할 때  
형태가 다른 경우도 있다.

00:28:08.594 --> 00:28:09.477

이런 뜻이에요.

00:28:09.577 --> 00:28:10.709

다른 경우가 있다.

00:28:10.809 --> 00:28:11.987

이걸 뭐로 얘기하냐면  
구체적으로 얘기하면

00:28:12.087 --> 00:28:14.083

불규칙 활용이라고 얘기하거든요.

00:28:14.183 --> 00:28:19.013

그렇구나, 어간의 끝이 똑같은데도  
왜 이렇게 다르게 활용하는 걸까?

00:28:19.113 --> 00:28:22.673

자료를 찾아보고 답을 한번  
해볼까,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.

00:28:22.773 --> 00:28:25.641

여러분한테 이거 자료 다  
활용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

00:28:25.741 --> 00:28:27.013

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.

00:28:27.113 --> 00:28:28.821

아무튼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.

00:28:28.921 --> 00:28:30.845

여러분, 화면이 너무 짹짹했죠?

00:28:30.945 --> 00:28:32.404

그래서 제가 다시 바꿨습니다.

00:28:32.504 --> 00:28:34.103

NG 하고 다시  
바꿨습니다, 여러분.

00:28:34.203 --> 00:28:36.018

보시면 그래도 조금  
더 편하실 거예요.

00:28:36.118 --> 00:28:36.984

가볼게요.

00:28:37.084 --> 00:28:41.891

현대 국어 좁다와 돕다의 15세기  
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

00:28:41.991 --> 00:28:47.538

좁다는 좁고, 조바처럼 자음과  
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

00:28:47.638 --> 00:28:50.917

어간이 좁으로 나타납니다, 좁은.

00:28:51.017 --> 00:28:53.590

그러나 돕다는, 이게  
핵심이잖아요, 그렇죠?

00:28:53.690 --> 00:28:58.095

돋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 
앞에서는 돋고처럼 어간이 돋으로,

00:28:58.195 --> 00:29:00.315

똑같이 나타나요,  
좁고하고 똑같아요.

00:29:00.415 --> 00:29:05.540

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 
앞에서는 도바처럼 어간이 돋,

00:29:05.640 --> 00:29:08.468

순경음 ㅂ으로 나타나는 겁니다.

00:29:08.568 --> 00:29:10.406

이게 핵심이죠.

00:29:10.506 --> 00:29:12.977

이쪽으로 와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?

00:29:13.077 --> 00:29:18.795

보시면 좁고 이렇게 되는 거고,  
좁아 이렇게 되는 건데.

00:29:18.895 --> 00:29:20.807

애는 뭐냐면, 애들아.

00:29:20.907 --> 00:29:23.341

좁+아가 되는 거고요.

00:29:23.441 --> 00:29:26.304

그다음에 돋다 같은 경우는  
어떻게 되는 거냐면

00:29:26.404 --> 00:29:28.400

돋고, 이 형태는 똑같아요.

00:29:28.500 --> 00:29:30.285

자음일 때는 똑같아,  
이어적기가 안 되니까.

00:29:30.385 --> 00:29:32.891

그런데 돋아 같은 경우는  
어떻게 되는 거냐면

00:29:32.991 --> 00:29:34.888

도 순경음 ㅂ 바가 되는 거야.

00:29:34.988 --> 00:29:38.900

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 
도+순경음 ㅂ이거든요.

00:29:39.000 --> 00:29:42.706

순경음 ㅂ+아이기 때문에 이게 연음이  
돼서 도바 이렇게 되는 거죠.

00:29:42.806 --> 00:29:45.557

이게 가장 큰  
차이점이예요, 알겠어요?

00:29:45.657 --> 00:29:49.097

그러면 다음으로, 이쪽으로  
오시면 다음으로.

00:29:49.197 --> 00:29:51.892  
우선 이거 정리를 해놓고.

00:29:51.992 --> 00:29:56.129  
다음으로 국어에서 벗다는 벗다와 젓다의  
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

00:29:56.229 --> 00:29:59.687  
활용형을 보면 벗다는 벗고,  
버서처럼 자음과 모음으로

00:29:59.787 --> 00:30:02.718  
시작하는 어미 앞에 모두  
어간이 벗으로 나타난다.

00:30:02.818 --> 00:30:07.795  
즉, 벗다 같은 경우도  
보면 벗고가 되는 거고,

00:30:07.895 --> 00:30:10.303  
그다음에 버서가 되는  
거예요, 그렇죠?

00:30:10.403 --> 00:30:14.793  
그러면 둘 다 이제 애는 버서  
같은 경우는 벗+어가 되는 거죠.

00:30:14.893 --> 00:30:21.109  
그런데 그러나 젓다는 자음으로  
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젓고이고,

00:30:21.209 --> 00:30:25.599  
어간이 젓이 되는 거고, 모음으로  
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저서,

00:30:25.699 --> 00:30:30.910  
이렇게 반치음으로 나타나서 어간이  
젓 반치음으로 나타난다.

00:30:31.010 --> 00:30:33.067  
보세요.

00:30:33.167 --> 00:30:35.621  
예를 들면 뭐냐면  
이거 두 개 볼게요.

00:30:35.721 --> 00:30:39.603  
젓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 
거냐면 젓고가 되는 거고,

00:30:39.703 --> 00:30:46.127  
그다음에 젓어가 되는 거고, 이거는  
뭐냐면 젓+어가 된다는 뜻이에요.

00:30:46.227 --> 00:30:49.020  
우선 여기 나온 내용을  
그대로 정리한 겁니다.

00:30:49.120 --> 00:30:50.365  
그대로 정리한 거예요.

00:30:50.465 --> 00:30:53.882  
그럼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 
선생님이 설명을 또 할 텐데.

00:30:53.982 --> 00:30:57.213  
우선 여기까지 이렇게 선생님이  
왼쪽에 나온 걸 그대로 정리한 건

00:30:57.313 --> 00:30:58.170  
이해되지죠?

00:30:58.270 --> 00:30:59.508  
그런데 봐봐요.

00:30:59.608 --> 00:31:06.543  
당시 국어 음절 끝에는 ㄱ, ㄴ, ㄷ,  
ㄹ, ㅁ, ㅂ, ㅅ, ㅇ의 8개의 소리가

00:31:06.643 --> 00:31:10.826  
올 수 있었기 때문에, 즉 다시 말하면  
8중성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.

00:31:10.926 --> 00:31:19.175  
돋고의 ㅂ과 젓고의 ㅅ은 각각  
순경음 ㅂ이 ㅂ으로 교체되고

00:31:19.275 --> 00:31:27.171  
그다음에 받침음이 ㅅ으로  
교체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.

00:31:27.271 --> 00:31:28.455  
무슨 얘기냐?

00:31:28.555 --> 00:31:29.437  
이쪽으로 올게요.

00:31:29.537 --> 00:31:30.949  
이게 좀 어렵습니다, 보세요.

00:31:31.049 --> 00:31:34.707  
애는 좁다하고 벗다는 상관 없어요.

00:31:34.807 --> 00:31:39.839  
둘 다 어간이 뭐냐면 좁이고,  
애도 역시 바로 벗이에요.

00:31:39.939 --> 00:31:41.023  
바뀐 게 아니에요.

00:31:41.123 --> 00:31:43.892  
그런데 이 돋고 같은  
경우는 뭐냐면, 보세요.

00:31:43.992 --> 00:31:48.951  
돋아 할 때는 이게 받침이 순경음  
ㅂ이 있어서 뒤로 바로

00:31:49.051 --> 00:31:51.969

연음이 되니까 도바  
이런 형태가 됐잖아.

00:31:52.069 --> 00:31:55.495

그런데 돕고 할 때는 ㅂ의  
형태가 나타났다는 얘기는

00:31:55.595 --> 00:32:01.499

원래 ㅅ의 어간이 뭐냐면  
돕+순경음 ㅂ이라는 얘기가야.

00:32:01.599 --> 00:32:09.285

순경음 ㅂ인데 이게 받침으로  
쓸 수 있는 게 8종성법,

00:32:09.385 --> 00:32:13.685

8개밖에 없으니까 돕고가 받침  
ㅂ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.

00:32:13.785 --> 00:32:16.363

원래는 어떻게 썼냐면 봐봐요.

00:32:16.463 --> 00:32:19.870

돕+동그라미 돕고  
이렇게 써야 되는데.

00:32:19.970 --> 00:32:24.659

받침 순경음 ㅂ이 오면 안 되니까  
이렇게 쓴 것뿐이라는 얘기에요.

00:32:24.759 --> 00:32:26.301

애도 마찬가지로요.

00:32:26.401 --> 00:32:30.368

애도 마찬가지로 젓다 같은 경우도  
원래 어간이 뭐냐면 젓,

00:32:30.468 --> 00:32:33.036

젓 할 때 이거거든?

00:32:33.136 --> 00:32:37.080

받침음이 있는 이걸데, 젓+고인데.

00:32:37.180 --> 00:32:40.448

그런데 받침음이 받침으로  
오면 안 되니까 어떻게?

00:32:40.548 --> 00:32:44.162

그걸 대신해서 ㅅ이 온  
것뿐이라는 얘기에요.

00:32:44.262 --> 00:32:50.003

결국은 좁다와 돕다는 기본형이  
원래는 달랐다는 거죠.

00:32:50.103 --> 00:32:51.865

좁다는 ㅂ이고요.

00:32:51.965 --> 00:32:56.669

돕다는 바로 뭐냐면 순경음  
ㅂ이었다는 얘기가야, 받침이.

00:32:56.769 --> 00:33:02.174  
그런데 뒤에 자음이 올 때는 순경음  
ㅂ이 받침으로 못 오니까

00:33:02.274 --> 00:33:07.558  
대신 ㅂ이 와서 좁고, 돕고  
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야.

00:33:07.658 --> 00:33:13.213  
그다음에 젓다와 마찬가지로 원래는  
받침으로 오는 게 받침인데,

00:33:13.313 --> 00:33:18.969  
8종성법 때문에 받침 대신에  
ㅅ이 온 것뿐이죠.

00:33:19.069 --> 00:33:21.386  
ㅅ이 온 것뿐이란 말이야.

00:33:21.486 --> 00:33:25.804  
그런데 이 젓고가 벗고랑 비슷한  
형태가 된 것뿐이에요.

00:33:25.904 --> 00:33:27.347  
이해되겠습니까, 여러분?

00:33:27.447 --> 00:33:30.780  
그러면 기본형이 달랐다는 거죠.

00:33:30.880 --> 00:33:35.373  
좁다와 돕다는 기본형이 받침이  
달랐다는 거예요, 원래는.

00:33:35.473 --> 00:33:40.750  
원래는 ㅂ하고 순경음 ㅂ이고,  
그다음에 ㅅ하고 받침인데

00:33:40.850 --> 00:33:42.168  
달랐다는 거죠.

00:33:42.268 --> 00:33:47.683  
그런데 받침으로 올 수 있는 게  
8종성에 의해서 ㅅ이 온 거고,

00:33:47.783 --> 00:33:49.606  
여기는 ㅂ이 온 것뿐이에요.

00:33:49.706 --> 00:33:51.360  
여기까지 이해가 되니, 애들아?

00:33:51.460 --> 00:33:52.571  
어려워요.

00:33:52.671 --> 00:33:59.372  
그다음, 그리고 도바와 저서는  
순경음 ㅂ과 받침이

00:33:59.472 --> 00:34:02.251  
뒤 음절의 첫소리로  
연음된 것뿐이야.

00:34:02.351 --> 00:34:07.530  
그러니까 원래는, 여러분 이해 못  
할까 봐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데

00:34:07.630 --> 00:34:09.776  
뚝다의 받침이 순경음 비야.

00:34:09.876 --> 00:34:14.202  
모음이니까 도버, 도바 이런 식으로  
순경음 비이 그대로 가는 거고.

00:34:14.302 --> 00:34:19.720  
젓다 같은 경우도 받침음인데  
어라고 하는 모음으로 시작되니까

00:34:19.820 --> 00:34:21.538  
그냥 연음이 그대로 됐단 말이야.

00:34:21.638 --> 00:34:25.396  
그런데 다만 자음일 때는 순경음  
비하고 받침음이 받침에

00:34:25.496 --> 00:34:32.848  
못 오니까 뚝다의 받침은  
좁다처럼 비 똑같은 형태로

00:34:32.948 --> 00:34:34.239  
나타났다는 것뿐이죠.

00:34:34.339 --> 00:34:38.656  
젓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니?

00:34:38.756 --> 00:34:43.447  
벗다랑 똑같은 형태로 나타났다는  
것뿐이에요, 알겠니?

00:34:43.547 --> 00:34:50.426  
그러면 그런데 순경음 비하고  
받침음은 15세기와 16세기를

00:34:50.526 --> 00:34:52.262  
지나면서 소실되었어요.

00:34:52.362 --> 00:34:54.182  
없어졌어요, 순경음  
비하고 받침음이.

00:34:54.282 --> 00:35:01.546  
먼저 순경음 비은 15세기 중엽을  
넘어서면서, 이거 예문 보세요.

00:35:01.646 --> 00:35:03.912  
도바는 도와가 됐고요.

00:35:04.012 --> 00:35:07.617  
더버는 더위와 같이, 잘 보세요.

00:35:07.717 --> 00:35:09.117  
이 조건을 잘 봐야 돼.

00:35:09.217 --> 00:35:16.128  
아 또는 어 앞에서는 반모음 오, 우로 바뀌고,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.

00:35:16.228 --> 00:35:19.343  
바뀌었고, 도바시니, 도오시니.

00:35:19.443 --> 00:35:25.680  
셔블, 서울에서와 같이 아래아 또는 으가 이어진 경우에는

00:35:25.780 --> 00:35:29.763  
모음과 결합해서 오 또는 우로 바뀌었으나,

00:35:29.863 --> 00:35:32.519  
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비으로 나타났다.

00:35:32.619 --> 00:35:34.889  
이 말이 정말 어렵죠.

00:35:34.989 --> 00:35:37.869  
보세요,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.

00:35:37.969 --> 00:35:40.384  
우선 두 번째 볼게요.

00:35:40.484 --> 00:35:43.733  
도바 이게 뭐가 됐어요?

00:35:43.833 --> 00:35:54.943  
도와가 된 거고, 그다음에 더버가 뭐가 된 거냐면 더워가 된 거야.

00:35:55.043 --> 00:35:58.209  
그러면 애는 뭐냐면, 애는 어떻게 형태가 바뀌었냐면

00:35:58.309 --> 00:36:00.003  
아 또는 어 앞에서, 보세요.

00:36:00.103 --> 00:36:02.010  
여기가 어쭙아요.

00:36:02.110 --> 00:36:03.337  
또는 여기가 어쭙아요.

00:36:03.437 --> 00:36:08.139  
아 또는 어 앞에서 이 비 순경음이 뭐로 바뀌었냐면

00:36:08.239 --> 00:36:11.299  
반모음 오나 우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야?

00:36:11.399 --> 00:36:13.192  
오나 우로 바뀌었다는 얘기야.

00:36:13.292 --> 00:36:14.651  
조건이 뭐예요?

00:36:14.751 --> 00:36:17.979  
아 또는 어 앞에서 뭐로 바뀌었다?

00:36:18.079 --> 00:36:22.114  
오나 우로 바뀌었다 이런 거죠,  
오나 우로 바뀌었다, 됐니?

00:36:22.214 --> 00:36:28.995  
그다음에 도바시니라고 했을 때 도,  
비 순경음, 아래아, 시니.

00:36:29.095 --> 00:36:32.793  
이게 뭐가 되냐면  
도오시니 이렇게 됐고요.

00:36:32.893 --> 00:36:37.323  
그다음에 셔블이라고 하는  
단어가 순경음 비 을,

00:36:37.423 --> 00:36:41.387  
이게 서울이 됐다는  
얘기는 뭐냐면 보세요.

00:36:41.487 --> 00:36:49.687  
아래아 또는 으가 이어진 경우에는,  
아래아와 그다음에 으가

00:36:49.787 --> 00:36:53.129  
이어진 경우야, 이어진  
경우는, 보세요.

00:36:53.229 --> 00:36:56.507  
비 순경음하고 아래아가 이어졌죠.

00:36:56.607 --> 00:36:59.427  
비 순경음하고 으가 이어졌죠.

00:36:59.527 --> 00:37:02.177  
그 모음과 결합하여, 이런 뜻이야.

00:37:02.277 --> 00:37:04.737  
그러면 그 모음과 결합한다는  
얘기는, 보세요.

00:37:04.837 --> 00:37:10.426  
그 모음과 결합한다는 얘기는 이  
아래아하고 순경음 비하고

00:37:10.526 --> 00:37:12.559  
같이 결합한 거야,  
같이 결합한 거야.

00:37:12.659 --> 00:37:17.558  
순경음 비하고 으가 같이  
결합한 거야, 됐니?

00:37:17.658 --> 00:37:18.993  
뭐로 바뀐다?

00:37:19.093 --> 00:37:20.306

오나 우로 바뀐다.

00:37:20.406 --> 00:37:21.634

볼게요, 정리합니다, 그러면.

00:37:21.734 --> 00:37:27.368

이어진 경우는 순경음 비하고 아래아가  
결합해서 이게 뭐로 바뀌었다?

00:37:27.468 --> 00:37:30.142

오로 바뀌었다, 아예  
오로 바뀌었다는 거고.

00:37:30.242 --> 00:37:34.071

순경음 비하고 으가 결합하면  
이게 뭐로 바뀌었다?

00:37:34.171 --> 00:37:36.127

우로 바뀌었다는 얘기에요.

00:37:36.227 --> 00:37:37.520

너무 어렵다.

00:37:37.620 --> 00:37:41.954

첫 번째는 오, 우로 바뀌거나  
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, 됐어요?

00:37:42.054 --> 00:37:46.591

이 아나 어 앞에서는 순경음 비  
자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고.

00:37:46.691 --> 00:37:50.993

애는 순경음 비과 애가 합쳐져서  
오로 바뀌었다는 거야, 합쳐져서.

00:37:51.093 --> 00:37:52.903

합쳐져서 우로 바뀌었다는 얘기야.

00:37:53.003 --> 00:37:57.742

이게 바로 비 순경음이 어떻게  
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

00:37:57.842 --> 00:37:58.717

이해되겠니?

00:37:58.817 --> 00:38:00.025

두 개가 서로 달라요.

00:38:00.125 --> 00:38:01.153

다시 보자.

00:38:01.253 --> 00:38:04.563

아나 어일 때는 순경음  
비만 바뀐 거고,

00:38:04.663 --> 00:38:08.413

그다음에 아래아가 결합하거나  
아니면 으가 결합할 때는

00:38:08.513 --> 00:38:12.988

순경음 비하고 아래아가

합쳐져서 오가 된 거야.

00:38:13.088 --> 00:38:16.027

순경음 비하고 오가  
합쳐져서 우가 된 거야.

00:38:16.127 --> 00:38:17.453

이게 서로 차이가 있는 거죠.

00:38:17.553 --> 00:38:19.102

너무 어렵겠다, 그렇지?

00:38:19.202 --> 00:38:21.502

이쪽으로 다시 가서.

00:38:21.602 --> 00:38:25.274

오 또는 우로 바뀌었으나 음절  
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

00:38:25.374 --> 00:38:26.547

비으로 나타났다.

00:38:26.647 --> 00:38:28.754

음절 끝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어?

00:38:28.854 --> 00:38:31.951

둑고 이런 식으로 비으로  
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죠.

00:38:32.051 --> 00:38:36.925

순경음 비이 없어져서 음절  
끝에서는 비으로 그대로 나타났다.

00:38:37.025 --> 00:38:38.138

됐니?

00:38:38.238 --> 00:38:39.425

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.

00:38:39.525 --> 00:38:40.797

이 조건을 아셔야 돼요.

00:38:40.897 --> 00:38:46.606

하나 더, 음절 끝에서는  
그대로 비으로 나타났다.

00:38:46.706 --> 00:38:48.989

비 순경음이 그대로  
비으로 나타났다.

00:38:49.089 --> 00:38:51.979

그래야지만 두 번째  
문제가 풀리는 거예요.

00:38:52.079 --> 00:38:53.282

갑니다.

00:38:53.382 --> 00:39:02.978

다음으로 반치음은 16세기 중엽에는  
아자, 아아 이렇게 바뀌었고.

00:39:03.078 --> 00:39:08.311  
저서, 저어에서와 같이 사라졌어,  
그냥 사라진 것뿐이에요.

00:39:08.411 --> 00:39:13.703  
음절 끝에서는, 음절  
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

00:39:13.803 --> 00:39:16.114  
음절 끝이라는 얘기는 어렵게  
생각하지 말고, 애들아.

00:39:16.214 --> 00:39:18.396  
자음과 결합했을 때 이런 뜻이에요.

00:39:18.496 --> 00:39:22.659  
이전과 다름없이 스으로  
나타났다, 됐어요?

00:39:22.759 --> 00:39:28.716  
그러면 반치음도, 여기 ㅂ  
순경음이었으니까 이쪽으로 와서

00:39:28.816 --> 00:39:32.095  
반치음은 어떻게 됐냐면  
반치음은 16세기 중엽에

00:39:32.195 --> 00:39:39.662  
예를 들어서 아자 이렇게  
바뀌었어요, 아자 이렇게 됐어.

00:39:39.762 --> 00:39:43.430  
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 
아아 이렇게 된 거죠.

00:39:43.530 --> 00:39:49.845  
그다음에 저서 같은 경우는  
저어 이렇게 됐잖아요.

00:39:49.945 --> 00:39:50.999  
이거는 그냥 뭐야?

00:39:51.099 --> 00:39:53.767  
반치음 자체가 그냥 소멸된  
거야, 없어진 거죠.

00:39:53.867 --> 00:39:56.557  
반치음 없어져서 여기 반치음이  
선생님 ㅇ으로 바뀌었잖아요.

00:39:56.657 --> 00:39:58.904  
아닙니다, 여기에서 ㅇ은  
음가가 없는 거잖아요.

00:39:59.004 --> 00:40:02.220  
반치음이 ㅇ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,  
음가가 없어진 거니까, 그냥.

00:40:02.320 --> 00:40:10.039  
소멸되거나 또는 어떻게  
되는 거냐면 음절 끝에서는

00:40:10.139 --> 00:40:14.065

스스로 그대로 통일되었다,  
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

00:40:14.165 --> 00:40:15.556

이해되겠니, 애들아?

00:40:15.656 --> 00:40:17.537

이게 바로 정리가  
되셔야 되는 거야.

00:40:17.637 --> 00:40:20.563

정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,  
그때 시험 문제 풀 때.

00:40:20.663 --> 00:40:23.384

이런 변화를 겪은 말 중에서  
서울, 도오시니, 아아는

00:40:23.484 --> 00:40:29.028

18, 19세기를 거쳐서 서울,  
그다음에 도우시니, 아우로 바뀌어

00:40:29.128 --> 00:40:30.787

오늘날에 이르렀다.

00:40:30.887 --> 00:40:33.099

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죠.

00:40:33.199 --> 00:40:34.939

대화 두 번째 보니까.

00:40:35.039 --> 00:40:40.000

자료를 보니까 순경음 비,  
반치음이 사라지면서

00:40:40.100 --> 00:40:43.678

도바가 도와로 저서가 저어로  
활용형이 바뀌었네.

00:40:43.778 --> 00:40:46.062

그럼 고기를 곱다가  
구워로 활용하고,

00:40:46.162 --> 00:40:50.103

밥을 짓다가 지어로 활용하는  
것도 같은 거겠죠, 왜?

00:40:50.203 --> 00:40:54.606

젓어가 아니고 지어, 아까  
위의 형태랑 똑같잖아요.

00:40:54.706 --> 00:40:56.803

젓어가 저어, 똑같잖아요.

00:40:56.903 --> 00:41:02.665

그다음에 곱다가 도와가 구워  
이렇게 발음이 형태가 똑같으니까

00:41:02.765 --> 00:41:03.728

비슷한 거네.

00:41:03.828 --> 00:41:07.479  
굽다하고 짓다가 불규칙하게 된 거야,  
불규칙 용언이라고 하는 거죠.

00:41:07.579 --> 00:41:09.311  
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41:09.411 --> 00:41:11.374  
적절하지 않은 것을 볼게요.

00:41:11.474 --> 00:41:16.939  
1번, 현대 국어의 도와와  
저어와 같은 활용형은, 다시.

00:41:17.039 --> 00:41:21.274  
애는 순경음 비과 관련된 거고,  
반치음과 관련된 거잖아요.

00:41:21.374 --> 00:41:24.456  
활용형은 어간의 형태가  
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이다.

00:41:24.556 --> 00:41:27.989  
즉, 이게 뭐냐면 도와 같은 경우는  
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해서

00:41:28.089 --> 00:41:29.919  
어간이 바뀐 거거든요.

00:41:30.019 --> 00:41:32.216  
젓다 같은 경우도  
ㅅ이 사라졌으니까.

00:41:32.316 --> 00:41:35.942  
돕다도 비이 오의  
형태로 바뀐 거고,

00:41:36.042 --> 00:41:39.176  
젓+어가 ㅅ이 사라진 거니까  
어간이 바뀐 거거든요.

00:41:39.276 --> 00:41:42.474  
그러니까 어간이 달라지는 불규칙  
활용에 해당하는군, 맞습니다.

00:41:42.574 --> 00:41:46.079  
15세기 국어 도바가 현대  
국어 도와로 나타나는 것은

00:41:46.179 --> 00:41:53.448  
순경음 비이 어간 끝에서 비으로  
나타난 결과라고 얘기했는데.

00:41:53.548 --> 00:41:55.856  
여기에서는 그 결과가 다른 거죠.

00:41:55.956 --> 00:42:00.453  
뭐가 된 거냐면 도바가 도와가  
됐다는 얘기는 뭐가 바뀐 거예요?

00:42:00.553 --> 00:42:05.808

아 모음 앞에 순경음 ㅂ이  
뉘로 바뀌었기 때문이다?

00:42:05.908 --> 00:42:07.920

받침음 오로 바뀐 거다.

00:42:08.020 --> 00:42:09.869

그래서 오가 들어가죠.

00:42:09.969 --> 00:42:11.877

도와라고 오가 들어간 거잖아요.

00:42:11.977 --> 00:42:15.897

그러니까 어간 끝에 ㅂ으로  
바뀐 결과가 아닌 거예요.

00:42:15.997 --> 00:42:19.389

그 결과로 도와가  
나타난 게 아니죠.

00:42:19.489 --> 00:42:20.377

이해되겠니, 애들아?

00:42:20.477 --> 00:42:21.265

이쪽으로 올게요.

00:42:21.365 --> 00:42:23.489

이게 뭐냐면 여기가  
답이었던 거예요.

00:42:23.589 --> 00:42:24.914

이게 답이었던 거야.

00:42:25.014 --> 00:42:29.345

아나 어 앞에 오, 우로, 순경음  
ㅂ이 오, 우로 바뀐 결과

00:42:29.445 --> 00:42:33.753

도와가 된 거니까 이걸 내용 일치  
문제에서 2번은 틀린 거죠.

00:42:33.853 --> 00:42:37.657

받침 음절 끝에서 ㅂ이 된  
건 또 다른 얘기고요.

00:42:37.757 --> 00:42:40.381

또 다른 얘기고, 아, 어  
앞에서 순경음 ㅂ이

00:42:40.481 --> 00:42:43.022

오, 우로 바뀌었다는 거니까  
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.

00:42:43.122 --> 00:42:45.186

나머지 보겠습니다.

00:42:45.286 --> 00:42:50.430

15세기 국어의 저서가 현대 국어에서  
저어로 나타나는 것은, 보세요.

00:42:50.530 --> 00:42:52.186  
반치음이 소멸된 거죠.

00:42:52.286 --> 00:42:56.969  
어간의 끝이 반치음이 없어진  
결과로구나라고 되어 있으니까

00:42:57.069 --> 00:43:05.191  
반치음이 없어진 결과로 젓어라고  
하는 게 여기에서 반치음이

00:43:05.291 --> 00:43:08.096  
사라진 거잖아요, 사라져서  
나타난 거니까 적절하죠.

00:43:08.196 --> 00:43:10.773  
15세기 국어의 돕고와  
현대 국어의 돕고는

00:43:10.873 --> 00:43:14.775  
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 
어간의 모양이 달라진다.

00:43:14.875 --> 00:43:16.689  
맞아요, 어간이 달라지는 거죠.

00:43:16.789 --> 00:43:21.700  
즉,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,  
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.

00:43:21.800 --> 00:43:24.463  
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는 거죠.

00:43:24.563 --> 00:43:25.679  
다시 보세요.

00:43:25.779 --> 00:43:29.823  
돕고 같은 경우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 
어미 앞에서는 비이 똑같죠.

00:43:29.923 --> 00:43:33.142  
그런데 어미가 모음일 때는  
어떻게 되는 거냐면,

00:43:33.242 --> 00:43:38.462  
모음일 때는 도와가 되는 거니까  
도+아가 도와가 되는 거니까

00:43:38.562 --> 00:43:41.365  
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 
앞에서는 바뀐 게 아니고

00:43:41.465 --> 00:43:44.736  
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 
어간의 모양이 바뀐 거죠.

00:43:44.836 --> 00:43:46.536  
4번도 역시 맞고요.

00:43:46.636 --> 00:43:50.962

15세기 국어 짓고와 현대 국어에서의  
짓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

00:43:51.062 --> 00:43:53.426

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 
달라지지 않았다.

00:43:53.526 --> 00:43:56.425

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 
앞에서는 똑같죠.

00:43:56.525 --> 00:43:57.865

4번, 5번이 똑같은 말입니다.

00:43:57.965 --> 00:44:02.818

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그  
형태가 똑같았으니까 상관없죠.

00:44:02.918 --> 00:44:05.668

그다음 문제가 아주  
어려웠습니다, 여러분.

00:44:05.768 --> 00:44:09.070

아주 어려운데, 여러분  
이건 어떻게 하나면.

00:44:09.170 --> 00:44:11.365

칠판 잠깐 보시고, 이쪽으로 와서.

00:44:11.465 --> 00:44:12.700

이게 가장 핵심입니다.

00:44:12.800 --> 00:44:18.220

이 내용이 정리가 된 것이  
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.

00:44:18.320 --> 00:44:19.741

이걸 묻는 문제예요.

00:44:19.841 --> 00:44:22.772

참 여러분이 어려웠을 거다,  
이런 생각이 듭니다.

00:44:22.872 --> 00:44:24.919

참 어려웠을 거다,  
이런 생각이 들어요.

00:44:25.019 --> 00:44:30.202

이걸 가지고 여러분 앞에 문제를  
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44:30.302 --> 00:44:33.163

우선 곱다라는 단어예요, 여러분.

00:44:33.263 --> 00:44:35.068

곱다라는 단어야, 애들아.

00:44:35.168 --> 00:44:36.434

곱다라는 단어인데.

00:44:36.534 --> 00:44:39.679

우선 애들아, 자음이  
붙었어요, 자음이.

00:44:39.779 --> 00:44:40.892  
그러면 어떻게 될까?

00:44:40.992 --> 00:44:42.446  
곱게가 되죠, 곱게.

00:44:42.546 --> 00:44:47.506  
왜 그러냐면 우선 현대 국어로  
보면 곱다가 뭐가 되는 거냐면

00:44:47.606 --> 00:44:51.804  
고와가 되는 거니까 원래 형태가  
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, 여러분?

00:44:51.904 --> 00:44:56.154  
고 순경음 비 이 있다는 걸 알 수  
있죠, 순경음 비 이 있다는 걸.

00:44:56.254 --> 00:45:01.543  
왜 현대 국어의 곱다라는 단어가  
고와라고 불규칙 활용된 단어니까

00:45:01.643 --> 00:45:03.329  
고+순경음 비.

00:45:03.429 --> 00:45:06.045  
아까 앞에 나왔던 형태하고  
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.

00:45:06.145 --> 00:45:08.918  
거기에 자음이 붙어서,  
처음에 자음이 붙었어요.

00:45:09.018 --> 00:45:10.333  
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

00:45:10.433 --> 00:45:14.087  
자음이 붙으면 순경음 비은 8종성법에  
대해서 비 이 되는 거니까

00:45:14.187 --> 00:45:16.634  
곱게가 맞죠, 됐어요?

00:45:16.734 --> 00:45:19.517  
그런데 여기에다 아나 어가 붙었어.

00:45:19.617 --> 00:45:20.434  
아가 붙었으면 어떻게 돼?

00:45:20.534 --> 00:45:21.384  
연음이 되잖아요.

00:45:21.484 --> 00:45:23.815  
그러니까 고바가 되죠, 고바 맞죠.

00:45:23.915 --> 00:45:26.405  
그다음에 안, 은 어떻게 돼요?

00:45:26.505 --> 00:45:28.725

연음이 되니까 고반  
이렇게 되는 거예요.

00:45:28.825 --> 00:45:32.426

다만 그다음의 문제는 뭐냐면  
아, 어로 바뀌었을 때는

00:45:32.526 --> 00:45:36.310

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이때는  
사라진다 그랬잖아요.

00:45:36.410 --> 00:45:38.682

어떻게 사라지냐면, 보세요.

00:45:38.782 --> 00:45:42.718

곱+아가 만났어요.

00:45:42.818 --> 00:45:44.478

그러면 어떻게 돼, 처음에는?

00:45:44.578 --> 00:45:45.952

고바 이렇게 됐죠.

00:45:46.052 --> 00:45:48.381

그런데 아 모음이 있을 때는  
뭐가 바뀐다고 그랬니?

00:45:48.481 --> 00:45:54.350

애만, 순경음 비만 오로  
바뀐다고 그랬으니까 고와가 맞죠.

00:45:54.450 --> 00:45:55.550

됐니?

00:45:55.650 --> 00:45:59.917

그런데 순경음 비하고 여기  
보니까 아래아가 같이 만났지.

00:46:00.017 --> 00:46:03.726

아래아가 같이 만났을 때는 둘  
다 합쳐서 오가 바뀌었으니까

00:46:03.826 --> 00:46:06.512

고온이 되는 거예요, 고온.

00:46:06.612 --> 00:46:09.571

정답 1번이 정답이에요, 여러분.

00:46:09.671 --> 00:46:10.693

됐니, 애들아?

00:46:10.793 --> 00:46:15.433

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, 가장 핵심은  
고바, 고반 이렇게 만들었어요.

00:46:15.533 --> 00:46:18.544

그다음에 아, 어가 만났을  
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

00:46:18.644 --> 00:46:23.065

순경음 비만 오나  
우로 바뀌는 거고.

00:46:23.165 --> 00:46:28.191  
그다음에 아래아 또는 으가 만났을  
때는 순경음 비하고 아래아하고

00:46:28.291 --> 00:46:32.026  
합쳐서 또는 순경음 비하고  
으가 합쳐서 바뀐다는 거예요.

00:46:32.126 --> 00:46:33.826  
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.

00:46:33.926 --> 00:46:36.048  
그러면 금을 굷다  
같은 경우도 볼까요?

00:46:36.148 --> 00:46:39.892  
금을 굷다, 그어서니까 옛날에는  
어떤 형태였다는 거냐면

00:46:39.992 --> 00:46:42.669  
굿다 이런 형태일 거  
아니예요, 그렇지요?

00:46:42.769 --> 00:46:44.329  
굿다 이런 형태일 거 아니야?

00:46:44.429 --> 00:46:49.173  
그러면 굷게, 이거는  
굿게가 맞죠, 굷게가.

00:46:49.273 --> 00:46:51.489  
자음일 때는 스을  
쓰는 거니까 맞고요.

00:46:51.589 --> 00:46:55.757  
굿+어는 그저, 순경음  
비 있었으니까 맞죠?

00:46:55.857 --> 00:46:57.478  
그슨 맞죠?

00:46:57.578 --> 00:47:00.256  
그다음에 굷게 이걸  
형태는 똑같아요.

00:47:00.356 --> 00:47:03.304  
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 
그서가 아니고, 애들아.

00:47:03.404 --> 00:47:08.847  
반치음이 사라진다 그랬으니까  
그어가 되는 거죠, 그어.

00:47:08.947 --> 00:47:12.749  
애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라지는  
거니까 그은이 되는 거죠.

00:47:12.849 --> 00:47:17.664

여기 반치음이 사으로 바뀌는 형태가 아닙니다.

00:47:17.764 --> 00:47:19.028  
눅다도 마찬가지로요.

00:47:19.128 --> 00:47:22.798  
누워니까 불규칙 활용이잖아요.

00:47:22.898 --> 00:47:26.932  
눅게 맞고요, 누버 맞고요, 누븐 맞아요.

00:47:27.032 --> 00:47:28.261  
그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요?

00:47:28.361 --> 00:47:31.233  
누워가 맞죠, 누워가 맞죠.

00:47:31.333 --> 00:47:33.321  
그런데 여기가 틀렸어.

00:47:33.421 --> 00:47:37.738  
누은이 아니라 순경음 비하고 으가 만나서 뭐로 바뀐다 그랬냐면

00:47:37.838 --> 00:47:39.624  
오나 우로 바뀐다 그랬잖아요.

00:47:39.724 --> 00:47:42.505  
저기 보니까 이쪽으로 다시 올게요, 미안합니다.

00:47:42.605 --> 00:47:45.989  
순경음 비하고 오가 만났을 때는 오고,

00:47:46.089 --> 00:47:48.650  
순경음 비하고 으가 만났을 때는 우잖아요, 우.

00:47:48.750 --> 00:47:54.397  
그러니까 이쪽으로 다시 와서 누은이 아니고 누운이 되겠죠, 누운.

00:47:54.497 --> 00:47:56.258  
우가 들어가는 거니까.

00:47:56.358 --> 00:47:57.972  
그러니까 이게 틀렸어요, 여기 부분에서는.

00:47:58.072 --> 00:48:00.320  
머리는 빗다, 빗어서.

00:48:00.420 --> 00:48:03.899  
여러분, 빗다, 빗어서 같은 경우는 규칙 활용이야.

00:48:03.999 --> 00:48:06.264  
잡다, 잡아서 규칙 활용이야.

00:48:06.364 --> 00:48:09.023

이 곱다 이런 형태하고 짓다  
이런 형태가 아닙니다.

00:48:09.123 --> 00:48:10.811

그래서 이거는 아예 아니죠.

00:48:10.911 --> 00:48:12.147

그래서 정답이 1번이 정답이에요.

00:48:12.247 --> 00:48:13.677

아주아주 어려웠고요.

00:48:13.777 --> 00:48:16.573

여러분, 듣고 나서도 좀 헷갈릴  
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

00:48:16.673 --> 00:48:18.997

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.

00:48:19.097 --> 00:48:20.226

이제 뒤로 넘어갈게요.

00:48:20.326 --> 00:48:22.358

뒤로 넘어가서 유형 연습  
두 번째 보겠습니다.

00:48:22.458 --> 00:48:24.597

칠판 정리하고 바로 시작할게요.

00:48:24.697 --> 00:48:26.467

유형 연습 두 번째 가볼게요.

00:48:26.567 --> 00:48:29.727

보기 ㉠과 ㉡에 속하는 사례를 바르게  
제시한 걸 찾으라고 그랬는데.

00:48:29.827 --> 00:48:32.737

모음 아래아는 중세 국어 이후에  
크게 두 단계 변화를 겪었다.

00:48:32.837 --> 00:48:37.965

첫 번째 뭐냐면 단어의 둘째  
음절 이하에 놓인 모음 아래아가

00:48:38.065 --> 00:48:39.167

으로 바뀌었다.

00:48:39.267 --> 00:48:42.521

이게 으로 변하였다는 게  
첫 번째,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.

00:48:42.621 --> 00:48:45.647

이 변화가 일어나고 난 뒤에  
2단계 변화에서는 첫째 음절에

00:48:45.747 --> 00:48:48.216

놓인 모음 아래아가 아로 변화하였다.

00:48:48.316 --> 00:48:50.527

단어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 
예외가 보이기도 하지만,

00:48:50.627 --> 00:48:55.078

대체로 이 두 단계의 변화를  
겪어서 아래아는 모음 체계에서

00:48:55.178 --> 00:48:57.112

사라지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

00:48:57.212 --> 00:48:58.194

어렵지 않아요.

00:48:58.294 --> 00:49:05.166

㉠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  
아래아가 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.

00:49:05.266 --> 00:49:06.191

보자.

00:49:06.291 --> 00:49:07.896

두 번째 아래아가 으로  
바뀐 거 보면 되죠.

00:49:07.996 --> 00:49:09.153

으로 바뀌었으니까 맞네요.

00:49:09.253 --> 00:49:10.524

으로 바뀌었으니까 맞죠.

00:49:10.624 --> 00:49:11.784

이거 첫 번째니까 팔이 없죠.

00:49:11.884 --> 00:49:14.003

이게 으로 바뀌었다는데  
아로 바뀌었으니까 틀렸죠.

00:49:14.103 --> 00:49:17.208

아달 할 때 아래아가 으로  
바뀌었으니까 이걸 맞네요.

00:49:17.308 --> 00:49:19.703

그다음에 첫 번째  
아래아가 뭐로 바뀌었어?

00:49:19.803 --> 00:49:22.839

아로 바뀌었는데, 이거는  
흠이니까 틀렸죠.

00:49:22.939 --> 00:49:27.054

가장 할 때 이게 아래아가 가,  
아로 바뀌었으니까 적절하죠.

00:49:27.154 --> 00:49:28.895

정답 2번이 정답이겠네요.

00:49:28.995 --> 00:49:33.061

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다섯 할 때  
이거는 두 번째 음절이니까 상관없죠.

00:49:33.161 --> 00:49:34.403

되게 쉬운 문제예요.

00:49:34.503 --> 00:49:36.930

첫 번째는 두 번째 음절에  
아래아가 으로 바뀌었는지

00:49:37.030 --> 00:49:38.195

시력 문제야, 애들아.

00:49:38.295 --> 00:49:41.376

두 번째 나은 첫 번째 아래아가  
아로 바뀌었는지 시력 문제예요.

00:49:41.476 --> 00:49:43.121

어렵지 않습니다.

00:49:43.221 --> 00:49:44.413

넘어갈게요.

00:49:44.513 --> 00:49:48.704

보기 1을 참고해서 보기 2의 ㉠과  
㉡에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얘기했는데.

00:49:48.804 --> 00:49:52.915

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만  
있지만,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

00:49:53.015 --> 00:49:56.492

에도 있고, 의도 있고, 수도  
있고, 이도 있었습시다.

00:49:56.592 --> 00:49:58.008

되게 많았네요, 그렇죠?

00:49:58.108 --> 00:49:59.137

이도 있었습시다.

00:49:59.237 --> 00:50:03.341

이중에 예, 의, 수는 결합하는  
명사의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

00:50:03.441 --> 00:50:05.964

구분되어 사용되었다라고  
얘기를 했죠.

00:50:06.064 --> 00:50:10.538

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사람이나  
동물이고 양성 모음일 때는

00:50:10.638 --> 00:50:12.418

뭘 쓰냐면 예를 써요.

00:50:12.518 --> 00:50:15.688

사람이나 동물이고 음성 모음일  
때는 의를 쓰는 거예요.

00:50:15.788 --> 00:50:18.834

사람이나 동물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 
돼요, 그 앞에 오는 게.

00:50:18.934 --> 00:50:21.645

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이에요.

00:50:21.745 --> 00:50:25.113

그러면 양성 모습, 음성 모습  
모두 스을 써도 돼요.

00:50:25.213 --> 00:50:28.570

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 
양성, 음성 모습이면,

00:50:28.670 --> 00:50:32.397

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면  
스을 그대로 쓰는 거죠.

00:50:32.497 --> 00:50:36.939

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크게 여러분이  
구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

00:50:37.039 --> 00:50:39.757

사람 아니고 동물도 아니면  
무조건 스인데,

00:50:39.857 --> 00:50:43.548

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이면 또  
스이 된다는 여기에 의해서

00:50:43.648 --> 00:50:45.939

주의하셔서 여러분 구분하셔야겠죠.

00:50:46.039 --> 00:50:48.694

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50:48.794 --> 00:50:52.978

다 필요 없고 밑에 보시면,  
예문들이 이렇게 나왔죠?

00:50:53.078 --> 00:50:54.859

이렇게 예문들이 나왔네요.

00:50:54.959 --> 00:50:58.161

그러면 뭘 보면 되냐면 아달이라는  
단어가 나왔어요, 아달.

00:50:58.261 --> 00:51:00.887

그러면 아달은 여러분, 사람이죠.

00:51:00.987 --> 00:51:04.909

높임의 대상은 아닐 거 아니야,  
높임의 대상은 아니야.

00:51:05.009 --> 00:51:07.181

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은 아니야.

00:51:07.281 --> 00:51:13.498

그다음에 끝음절에 아래아가 있으니까  
이게 뭐냐면 양성 모습이거든요.

00:51:13.598 --> 00:51:14.978

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면 돼요?

00:51:15.078 --> 00:51:16.156

에가 들어가면 되죠.

00:51:16.256 --> 00:51:20.955  
위에 표를 보시면 사람이면서 높임의  
대상이 아니고 양성 모음이니까

00:51:21.055 --> 00:51:22.726  
에를 쓰면 되죠.

00:51:22.826 --> 00:51:25.406  
그다음에 술위라고,  
선생님 술위가 뭐예요?

00:51:25.506 --> 00:51:27.326  
오른쪽 수레라는 단어잖아요.

00:51:27.426 --> 00:51:31.678  
수레니까 사람도 아니죠,  
그다음에 동물도 아니죠.

00:51:31.778 --> 00:51:32.852  
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면 돼?

00:51:32.952 --> 00:51:35.573  
사이 들어가면 되죠, ㉠에서는.

00:51:35.673 --> 00:51:38.473  
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냐면  
1번이 정답이에요.

00:51:38.573 --> 00:51:42.465  
이거는 여기 위에 나오는 조건만  
확인하고, 조건만 확인하면

00:51:42.565 --> 00:51:44.479  
금방 문제 풀 수 있는 겁니다.

00:51:44.579 --> 00:51:46.128  
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.

00:51:46.228 --> 00:51:48.826  
보기의 (가)를 바탕으로 해서  
(나)를 이해한 내용으로

00:51:48.926 --> 00:51:51.482  
적절하지 않은 것을  
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51:51.582 --> 00:51:55.062  
15세기 국어는 자음과  
이것이 존재하고요.

00:51:55.162 --> 00:51:58.408  
초성에 오는 비 드은  
비과 드, 비과 사이

00:51:58.508 --> 00:51:59.836  
모두 발음되었다.

00:51:59.936 --> 00:52:03.059  
그러면 브드라고 하면 브드

이렇게 다 발음했다는 거죠.

00:52:03.159 --> 00:52:05.827

중성에서 ㄷ과 ㅅ이  
다르게 발음되었다.

00:52:05.927 --> 00:52:09.257

중성에서는 ㄷ과 ㅅ이  
다르게 발음되었다는 거고.

00:52:09.357 --> 00:52:12.067

평성, 거성, 상성의 성조를  
방점으로 구분하였고.

00:52:12.167 --> 00:52:13.712

연철 표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.

00:52:13.812 --> 00:52:16.449

적절하지 않은 것을  
고르라고 얘기했는데.

00:52:16.549 --> 00:52:17.573

1번 보세요.

00:52:17.673 --> 00:52:20.359

1번을 보니까 수비에는 오늘날에  
없는 자음이 들어 있다, 뭐예요?

00:52:20.459 --> 00:52:21.895

순경음 ㅂ 이게 없었잖아요.

00:52:21.995 --> 00:52:23.627

그러니까 1번은 적절하죠.

00:52:23.727 --> 00:52:28.602

ㄷ을 보니까 뜨들에서 ㅂ ㄷ은  
두 개 다 발음되었다, 맞죠.

00:52:28.702 --> 00:52:31.139

브들 이런 식으로 썼을 겁니다.

00:52:31.239 --> 00:52:32.998

ㄷ을 보니까, ㄷ이 뭐죠?

00:52:33.098 --> 00:52:36.076

ㄷ은 중성의 ㄷ, ㅅ이  
바르게 발음되었다 그랬으니까

00:52:36.176 --> 00:52:41.139

어엿비에서 둘째 음절의  
중성 ㄷ으로 발음되었다.

00:52:41.239 --> 00:52:42.500

너무 쉽네요.

00:52:42.600 --> 00:52:45.147

ㅅ하고 ㄷ이 발음이  
다르다면서요.

00:52:45.247 --> 00:52:49.159

그런데 그 중성 ㅅ은 ㄷ으로

발음되었다, 틀렸죠, 당연히.

00:52:49.259 --> 00:52:53.015

그다음에 해여의 첫음절과 둘째  
음절은 성조가 달랐다, 왜?

00:52:53.115 --> 00:52:55.749

점 두 개 있고, 점 하나  
있으니까 성조가 달랐죠.

00:52:55.849 --> 00:52:59.061

㊸을 보니까 쭈메에는 연철  
표기가 적용되었다라고 했는데

00:52:59.161 --> 00:53:01.546

쭈메가 좀 어려운데요, 여러분.

00:53:01.646 --> 00:53:04.041

쭈메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타났느냐.

00:53:04.141 --> 00:53:10.563

쓰다라는 단어에 움이라는  
명사형 접사가 들어갔어요.

00:53:10.663 --> 00:53:12.530

명사형이 들어갔어.

00:53:12.630 --> 00:53:14.658

음, 음 이런 게 명사형  
어미가 들어간 거고.

00:53:14.758 --> 00:53:17.120

쑈에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.

00:53:17.220 --> 00:53:25.224

으가 탈락되고, 쑈+에가 된 거고,  
그다음에 쭈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.

00:53:25.324 --> 00:53:27.474

그래서 이어적기가 됐습니다.

00:53:27.574 --> 00:53:29.586

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.

00:53:29.686 --> 00:53:31.582

어렵지 않죠.

00:53:31.682 --> 00:53:35.252

보기 1의 (가), (나)에  
따른 표기의 사례를 보기 2의

00:53:35.352 --> 00:53:38.370

㉠~㉡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걸  
한번 골라보라고 얘기했는데.

00:53:38.470 --> 00:53:40.834

보겠습니다, 여러분.

00:53:40.934 --> 00:53:45.850

뭉냐면 ㅇ은 입술소리 아래  
니저 쓰면 입시울 가배야반 소리

00:53:45.950 --> 00:53:47.617  
다외나지라, 무슨 뜻이에요?

00:53:47.717 --> 00:53:50.956  
ㅇ을 순음 아래 이어 쓰면  
순경음, 뭘 쓰라는 얘기입니까?

00:53:51.056 --> 00:53:52.026  
뭘 찾으라는 얘기입니까?

00:53:52.126 --> 00:53:54.284  
순경음이 들어가 있는 단어  
찾아라, 이런 거예요.

00:53:54.384 --> 00:53:56.586  
첫소리를 어울워 쓴다면 갈방 쓰라.

00:53:56.686 --> 00:53:59.195  
초성 글자를 합하여 사용할  
때는 나란히 써라,

00:53:59.295 --> 00:54:00.499  
이건 뭘 찾으라는 얘기입니까?

00:54:00.599 --> 00:54:06.844  
이거는 첫소리를 같이 쓰는 거니까  
어두 자음군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.

00:54:06.944 --> 00:54:09.468  
그러면 간단하죠.

00:54:09.568 --> 00:54:10.954  
뭘 찾으라는 얘기야?

00:54:11.054 --> 00:54:12.209  
순경음 ㅂ 찾으시면 되죠.

00:54:12.309 --> 00:54:13.764  
순경음 ㅂ 쓴 거고.

00:54:13.864 --> 00:54:16.648  
찾아 써라 그랬는데.

00:54:16.748 --> 00:54:19.122  
㉠~㉡에서 찾아 써라 그랬으니까.

00:54:19.222 --> 00:54:23.400  
우선 ㉠은 순경음이니까 순경음  
들여간 걸 찾으시면 뭐예요?

00:54:23.500 --> 00:54:24.971  
㉡이죠, ㉢.

00:54:25.071 --> 00:54:26.724  
이게 첫 번째고요, ㉢이고.

00:54:26.824 --> 00:54:30.522  
그다음에 맨 앞에 어두 자음군이  
들여간 건 따라미니라.

00:54:30.622 --> 00:54:31.953  
따라미니라 이거 보이죠?

00:54:32.053 --> 00:54:33.107  
㉞, ㉞이네요.

00:54:33.207 --> 00:54:36.095  
정답은 4번이 정답이  
되겠습니다, 4번.

00:54:36.195 --> 00:54:37.895  
아니구나, 여기 5번이구나.

00:54:37.995 --> 00:54:39.174  
㉞, ㉞이 5번이네요.

00:54:39.274 --> 00:54:41.474  
여러분 번호하고 제 번호가  
지금 조금 달라졌는데.

00:54:41.574 --> 00:54:43.721  
㉞, ㉞이 들어간 것만  
찾으면 되겠네요.

00:54:43.821 --> 00:54:45.814  
㉞, ㉞ 답 5번이라고  
되어 있네요.

00:54:45.914 --> 00:54:47.213  
5번 ㉞, ㉞입니다.

00:54:47.313 --> 00:54:50.273  
이거는 뭐 간단하게 앞에서  
이게 뭘 말하는지.

00:54:50.373 --> 00:54:54.042  
순음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,  
순경음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고.

00:54:54.142 --> 00:54:57.684  
나란히 쓰라고 했을 때 어두  
자음군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.

00:54:57.784 --> 00:54:59.279  
크게 어렵지 않았습시다.

00:54:59.379 --> 00:55:00.455  
여러분, 여기까지요.

00:55:00.555 --> 00:55:02.934  
다음 시간에 그 뒤에  
실전 문제 할 텐데.

00:55:03.034 --> 00:55:07.025  
오늘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유형  
연습 1이 상당히 좀 어려웠죠.

00:55:07.125 --> 00:55:11.228  
칠판에 선생님이 아주 많이 썼는데,  
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서

00:55:11.328 --> 00:55:13.092

쓰시는 게 제일  
중요합니다, 여러분.

00:55:13.192 --> 00:55:14.403

여러분, 여기까지 하고요.

00:55:14.503 --> 00:55:16.329

다음 시간에 실전  
문제 들어가겠습니다.

00:55:16.429 --> 00:55:18.003

여러분, 여기까지 하죠.

00:55:18.103 --> 00:55:19.149

수고하셨습니다.